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2016년 8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화 숙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지도교수 홍 봉 선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6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이 화 숙

이화숙의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6월

위원장

황 성 철



위 원

성 향 숙



위 원

한 지 나



위 원

아 영 아



위 원

홍 봉 선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신라대학교 대학원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이 화 숙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아동기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와 사회학습이론에 의하여,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폭력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성별 권력관계를 데이트폭력의 원인으로 설명하는 페미니스트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제3변인으로써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 또는 완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고, 총 1,400명을 유의 할당 표집하여 설문조사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052명의 설문지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에 의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천적, 정책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적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젠더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다섯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젠더감수성훈련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가족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여섯째, 젠더감수성을 확장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일곱째, 젠더감수성 확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폭력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데이트폭력, 젠더감수성,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 사회학습이론, 페미니스트이론, 조절효과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5
제2장 이론적 배경	7
제1절 데이트폭력 가해	7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유형	7
2. 대학생 데이트폭력의 실태	12
3. 데이트폭력 가해의 원인이론	14
제2절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19
1. 가정폭력 경험	19
2.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23
3.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25
제3절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26
1. 학교폭력 경험	26
2.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31
제4절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32
1. 젠더감수성	32
2.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가해	38

제3장 연구방법	41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41
1. 연구모형	41
2. 연구가설	43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43
제3절 자료 분석방법	46
제4절 측정도구	47
1. 독립변수 : 가정폭력 경험	48
2. 독립변수 : 학교폭력 경험	50
3. 조절변수 : 젠더감수성	53
4. 종속변수 : 데이트폭력 가해	55
제4장 연구결과	58
제1절 주요변수의 특성	58
1. 주요변수의 정규성 및 기술통계	58
2. 상관관계분석	59
제2절 가설 검증	61
1. 매개모형 검증	61
2. 조절모형 검증	67
제5장 논의 및 결론	76
제1절 논의	76

1.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76
2.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	78
제2절 결론 및 제언	80
참고문헌	89
Abstract	107
부록	109

〈그림 목차〉

[그림 1]	매개효과 연구모형	42
[그림 2]	조절효과 연구모형	42
[그림 3]	가정폭력경험의 확인적 요인분석	50
[그림 4]	학교폭력경험의 확인적 요인분석	52
[그림 5]	젠더감수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55
[그림 6]	데이트폭력가해의 확인적 요인분석	57
[그림 7]	매개모형의 측정모형	63
[그림 8]	학교폭력경험의 매개모형	65
[그림 9]	조절효과 측정모형 분석	69
[그림 10]	조절효과 연구모형	73
[그림 11]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74

〈표 목차〉

<표 1> 2014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	13
<표 2> 연구대상자의 산출근거	45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45
<표 4> 가정폭력경험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49
<표 5> 학교폭력경험 변수의 타당성과 신뢰도	51
<표 6> 젠더감수성 확인요인분석 및 신뢰도 검증	54
<표 7> 데이트폭력가해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56
<표 8>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59
<표 9> 측정변수의 상관분석	60
<표 10>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62
<표 11> 매개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2
<표 12>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64
<표 13> 매개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64
<표 14> 매개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	66
<표 15>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68
<표 16>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68
<표 17>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70
<표 18>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71
<표 19> 학교폭력경험 및 젠더감수성의 단순기울기 검증	74
<표 20> 연구가설 검증 결과	75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랑하니까”, “확인 받고 싶은 사랑”, “침묵의 폭행” “죽음을 부르는” 등으로 언론에 이슈가 되면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데이트폭력이라 하면 다소 생소하고 낯설게 느껴졌으나 지금은 그 실태와 정도의 심각성이 언론과 연구를 통해 드러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데이트는 두 사람이 연인관계로 만나는 것을 말하며, 남녀가 결혼하기 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수적이고 일반적인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트 중에 나타나는 의견충돌이나 갈등상황은, 싸움과 같은 부정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로 나타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심한 언쟁 등의 정서적 상처를 주는 행위도 발생하며 억압적인 성관계 요구 등의 성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윤진 · 양승연 · 박병금, 2012).

친밀한 관계인 이성교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기에 당사자들 간 사랑과 폭력의 경계가 불확실하며,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데이트폭력은 성폭력, 물리적 폭력, 언어적 폭력, 정신적 폭력, 스토킹, 사이버 폭력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종, 연령, 학력, 경제수준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적 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인 부상뿐만 아니라 정서적 손상까지도 가져오며 이는 향후 사회생활 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안귀여루, 2006). 데이트 중에 신체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스트레스, 불안, 우울 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으며(김용미 · 김현옥, 2000; Carroll, Raj, Noel, & Bauchner, 2011), 신체폭력, 성폭력 없이 정서폭력만으로도 그 과정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이정은 · 이미경 · 현명호, 2012). 또한 이성교제기간이 길수록 데이트폭력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이은혜, 2010), 데이트폭력 피해 여성은 결혼을 한 후에도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강

효진·박기환, 2013)고 보고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데이트를 하고 있는 남녀 커플들 중 많게는 69%가 데이트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Christensen, Atkins, Yi, Baucom & George, 2006; Logan, Shannonm, Cole & Walker, 2006),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폭력은 3커플 중 1커플로 발생(Stappenbeck & Fromme, 2010; White & Smith, 2009)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대생들 중 77.8%가 데이트폭력을 겪고 있으며(한국여성의전화, 2009),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450건 중 1,377건(95.0%)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여성의전화, 2014). 데이트 폭력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 피해 여성들이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강도가 심각할 경우 목숨을 위협하는 범죄 수준까지 이르기도 한다. 또한 최근 경찰청(2016) 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5년간 36,48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7,296명, 하루 평균 20명이 데이트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5년간 542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찰청 조사에서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대부분이 남성이라고 밝혀졌으며, '연인 관계'라는 특성상 신고 되지 않은 건수를 감안하면 데이트 폭력에 노출된 여성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제 데이트 폭력 컨소시엄(2004)과 Antonio & Hokoda(2009)의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피해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심각한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서경현, 2002; Archer, 2000; Hird, 2000; Levy, 1990). 이러한 연구들을 토대로 데이트폭력의 피해자가 대부분 여성이며, 전통적 성문화에 의하여 성별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을 젠더폭력이라 부른다.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성'과 '남성성'을 바탕으로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통칭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은 폭력 피해에도 불구하고 수치심,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우려 때문에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해(서혜경, 2014) 폭력에 대한 데이터가 아직도 정확하게 축적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양희, 2013). 이러한 젠더폭력이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젠더구조에 기인한 것으로 볼 때 젠더에 대한 감수성은 이를 재구조화하는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성에 대한 인식과 행동이 점차 개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젠더에 기반한 데이트폭력의 문제에서 젠더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폭력 가해 가능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젠더감수성은 가부장제에 의하여 남녀의 서로 다른 사회적 구조와 성역할로부터 발생하는 성별 불평등에 대한 인식과 이해 및 관심의 차이를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상호 평등한 젠더질서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젠더감수성은 단지 여성의 권익보호 측면보다는 여성에 대한 복지가 확보되어야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양육환경이 조성되며 건강한 가족복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특히 아동·청소년·성인에 이르기까지 차별과 권력관계에서 나타나는 폭력성을 조절하여 폭력 없는 건강한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의 데이트폭력과 젠더감수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데이트폭력은 개인적 문제나 제도 밖의 문제가 아니라 성별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할 수 있다(이화영, 2014). 특히 성정체성의 경우에는 남성성이 강할수록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 남자청소년의 폭력성에 남성성이 보다 큰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유영현·김지연, 2009)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

오래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등의 여성비하 발언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상당히 변화되긴 했지만, 최근에 다시 김여사·된장녀·김치녀·맘충 등의 여성 비하적인 용어들이 난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남역에서의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혐오범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혐오(misogyny)는 여성을 향한 공격성과 성차별 및 폭력 등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젠더 인식 속에서 장기간 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피해 여성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가해자에 대한 성별 권력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젠더감수성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과 성폭력, 데이트폭력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젠더 또는 성에 대한 인식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온 성별 권력관계를 재구조화하기 위

한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예측해볼 수 있다. 이미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와 여성의전화 등에서는 폭력발생의 사후처리보다는 예방 차원에서의 젠더감수성 교육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폭력을 둘러싼 공포와 안전에 대한 대안으로서 젠더감수성이 자기방어로 기능하여, 젠더가 고정화된 사회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젠더감수성은 우리가 흔히 마주하는 젠더체계를 바르게 바라보는 눈으로 작용할 것이며, 성역할과 권력관계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한 폭력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청소년 및 대학생을 중심으로 데이트폭력의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기나 대학생 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폭력경험을 사전에 예방하여 이후 성인기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근래의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데이트폭력 남성과 여성의 가해 비율에 관한 연구(정이랑, 2013), 과거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소영, 2010; 박하나·장수미, 2012; 정혜정, 2003; 최지현, 2005),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한 연구(유선영, 2000; 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이충환·신준섭, 2015), 데이트폭력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서경현, 2009; 오세연·곽영길, 2011), 학교폭력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사공은희, 2007) 등이 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동기 가정폭력의 직·간접적 영향이 청소년기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결과는 비교적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제도적·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방적 측면에서도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폭력의 연결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수행되었다. 또한 이들 폭력의 관계에서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에 대한 실증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해 수행되었다.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연구문제

현재까지의 많은 연구들(김민지, 2014; 김윤희, 2006; Walker, 1980)에서 폭력은 특정 패턴을 가지고 반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 발달에서 가정환경은 매우 중요하며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아동기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학교폭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김재엽·이순호, 2011; 이승출, 2012; 이정애, 2014; 임희복, 2002; Evans, Davies & Dilillo, 2008; Margolin & Gordis, 2000; McCloskey & Lichiter, 2003), 학교폭력의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사공은희, 2007; Spencer & Bryant, 2000; Cleveland, Herrera, & Stuewig, 2003; Schnurr & Lohman, 2013)를 통해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폭력 경험은 성인의 폭력과 관계가 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경험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윤진·양승연·박병금, 2012; 최윤경, 2012)를 통해 젠더의식과 데이트폭력의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친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을 분석하고 데이트폭력과의 연속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014년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데이트폭력 관련 상담건수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20대와 30대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동기폭력과 청소년기폭력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30대보다 20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후 이들의 성인기 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 및 페미니스트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데이트폭력에 긍정적 영향력을 주는 젠더감수성이 제3변인으로써 부정적인 효과를 조절(moderating) 또는 완충(buffering)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제 3변인인 젠더감수성이 과거에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대

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4>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5> 대학생의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6>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연구문제 7>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분석함에 있어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학교폭력경험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선행연구에서 분석하지 못한 젠더감수성의 조절 또는 완충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탐구하여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을 경험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데이트폭력 가해로 발전하는 과정을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주요하게 다루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데이트폭력 가해

1. 데이트폭력의 개념 및 유형

1) 데이트폭력의 개념

파트너와의 친밀한 관계는 대부분 데이트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 개별적이든지 집단적이든지 상대방과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는 데이트(date)를 통하여 상대방과의 친교를 형성하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경로로 데이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청소년들에게 있어 데이트의 기능을 Atwater(1992)는 다음의 다섯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데이트를 통하여 여가활동을 즐기는 기회가 만들어 진다. 둘째, 데이트는 이성의 구성원들과 함께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대인관계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셋째, 데이트 기회가 누적될수록 상호 만족스러운 친교관계로 발전되고 또 그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 넷째, 데이트를 통하여 상호 용납되는 범위 내에서 성 행동을 실험하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 다섯째, 데이트는 나중에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귀중한 경험이 된다.

남녀 간의 데이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는 어떤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 Roche(1986)는 데이트 관계의 진행을 다음의 다섯 단계로 개념화하였다. 첫 단계는 사랑이나 애착이 발달하지 않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애착이나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데이트 상대와 서로 사랑에 빠지는 단계이며, 네 번째 단계는 오직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데이트를 하는 단계이며, 다섯 번째 단계는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는 단계이다(윤가현, 2002).

이러한 남녀의 데이트 단계에서 부지불식간에 겪을 수 있는 부정적 행동 중에 하나가 데이트폭력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한 전문적 용어의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은 Makepeace(1981)가 대학생들의 구애기 폭력(Courtship violence)을 연구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동안 데이트(date)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구혼기(courtship),

데이팅(dating), 결혼전(premarital), 친밀한(intimidat)과 같은 용어를 주로 사용해 왔으며, 폭력(violence)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공격(aggression), 학대(abuse) 등과 같은 용어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Sugarman & Hotaling, 1989).

이후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들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다양하게 사용되었는데, 초기에는 구애기 폭력-Courtship violence(Thompson, 1986; Riggs & O'Leary, 1989; 김용미, 1996), 구애기 학대-courtship abuse(Puig, 1984; Marshall & Rose, 1988; Sugarman & Hotaling, 1989), 결혼 전 학대-premarital abuse(Cate et al., 1982), 데이트공격-dating aggression(Stets, 1992)이라는 용어들이 사용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혼전 폭력, 연애 폭력(서경현 · 이영자, 2001), 교제 폭력, 이성 교제 폭력(김경신 · 김정란, 1998; 안귀여루, 2002; 이영숙, 1998; 조현각, 2001), 데이트관계 폭력 등이 혼용되어 사용(정소영 · 임채영 · 이명신, 2010)되고 있으며 법학 실무에서는 ‘치정 폭력’(박현정, 2015)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데이트폭력(강효진 · 박기환, 2013; 유선영, 2000; 이정화, 2006; 이충환 · 신준섭, 2015; 조춘범 · 이현, 2013; 하예지, 2014; Carlson, 1987; Gomez, 2010; Spencer, Bryant, 2000)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의 혼용으로 인하여 그 개념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Straus(2004)는 데이트 폭력을 “데이트 관계에 있는 미혼 남녀가 상호 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하였으며, Thompson(1986)은 “파트너에게 신체적 혹은 언어적 학대행동을 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정화(2006)는 “결혼한 경험이 없는 남녀가 교제에서부터 약혼이나 동거에 이르기까지 교제하는 전 기간 동안 두 사람 간 합의 없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하게 되는 신체적 · 심리적 · 성적인 위해(harm)행동”으로 정의하였으며, 하예지(2014)는 “데이트폭력이란 이성 간에 서로 교제하는 관계에서 파트너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심리적 · 신체적 · 성적행동 또는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심리적 · 신체적 · 성적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개념정의는 데이트폭력의 심리적·신체적·성적폭력 유형 중 어떤 것을 포함하는가에 따른 차이로 해석되어진다. 신체적 폭력만을 포함한 연구(김용미, 1996; 주지현, 2014; Marshall & Rose, 1988; Puig, 1984; Stets, 1992)와 심리적·신체적 폭력(유선영, 2000; Ronfeldt 등, 1998), 성적폭력을 포함한 연구(김소영, 2010; 서혜경, 2014; 최지현, 2005; 하예지, 2014; Geffner, Sorenson, & Lundberg-Love, 1998)들이 있다. 그 외에도 동성 간의 데이트관계를 포함한 데이트폭력을 연구(최윤경, 2012)하기도 하였다.

데이트폭력이라고 하면 이성교제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하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공격행동들까지 포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조준범·이현, 2013). 과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성을 논하거나 축정하는 데에 거부감이 많았으나, 오늘날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행동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성에 대한 인식도 개방화(홍봉선, 2012) 되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데이트폭력에는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 및 성적폭력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을 “데이트 관계에서 상호 합의 없이 상대방에게 위해가 되는 신체적, 정서적, 성적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 데이트폭력의 유형

일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은 결혼 전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가해지는 폭력의 유형에 따라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정서적 폭력(Emotional violence), 성적폭력(sexual violence)으로 나누어진다. 최근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www.cdc.gov/violenceprevention)에서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위의 세 가지에 스토킹(Stalking)을 포함시켜 설명하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스토킹을 정서적 폭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가장 심각하고 자주 발생하는 유형으로, 상대방에게 힘이

나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적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바닥 혹은 주먹으로 때리는 행동, 발로 차거나 목을 조르는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행동 등 상해를 입히는 모든 행동을 말한다(신혜섭, 2005; 정소영 · 임채영 · 이명신, 2011;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 2004).

북미의 대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이성교제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Riggs & Caulfield, 1997), 데이트 커플의 약 20~3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였다(Bell & Naugle, 2007; Cate et al., 1982; Magdol et al., 1997; Makepeace, 1981; Straus, 2004; White & Koss, 1991). 국내에서는 선행 연구들의 신체적 폭력 발생률을 취합한 결과 8.7~54.3%의 범위(임혜진, 2004; 조현각, 2001; 현정혜, 2006)로 나타났다. 특히 신체적 폭력의 경우, 일방적으로 한 쪽이 폭력을 가하거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폭력을 주고받는다(White & Koss, 1991)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특징은 대부분 과도한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한다든지, 음주상태에서 폭력을 가하고 술이 깨면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결국 본 유형은 폭력과 그에 따른 피해 및 사과와 용서, 다시 반복되는 폭력의 악순환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유형에 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오세연 · 곽영길, 2011).

둘째, 정서적 폭력은 무시, 비난하기, 신체적 폭력을 가하겠다는 협박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손상하는 행동으로 언어적 공격과 비언어적 공격 모두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욕설, 소리 지르기, 경시, 상대방의 소유물을 부수는 행동, 상대방의 친구나 친척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행동, 불합리한 소유욕이나 극도의 질투를 가지고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등이 포함된다(Straus, 2004; White & Koss, 1991). 이러한 정서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보다 자주 발생하고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며, 신체적 폭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Murphy, 1988). 미국 데이트 커플의 약 70~88%가 정서적 폭력을 경험하였고(Lo & Sporkowski, 1989; Neufeld et al., 1999; White & Koss, 1991), 국내에서는 14.2~95.3%(오세연 · 곽영길, 2011; 유선영, 2000; 최지현, 2005)의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정서적 폭력은 심리적 감금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우울증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 대인기피증까지 야기하게 된다(오세연·곽영길, 2011). 이러한 유형은 표면적으로 확인되기 어려운 형태이므로 그 심각성은 오히려 신체적 폭력 내지 성폭력에 비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어 각종 심리 치료를 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박현정, 2015).

셋째, 성적폭력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위협 또는 신체적 힘을 사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거나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성추행·성희롱·강간 등이 포함(Straus et al., 1996)되며, 억압적인 성관계 요구, 이에 상응하는 위협적인 행동과 폭언, 성관계, 미수에 그친 성적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정소영·임채영·이명신, 2011; 신혜섭·양혜원, 2005)을 말한다.

데이트 관계에서 흔히 접하게 되는 스킨십의 경우, 양쪽이 암묵적인 동의하에 일어나는 행동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 내지 동의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강제적으로 일어난다면 일종의 성폭력에 속하며, 성관계도 마찬가지이다(오세연·곽영길, 2011). 성폭력의 유형에는 성희롱, 강간, 강제추행, 스토킹, 음란전화 등이 있으며,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동에 대해 이를 강요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들이 연인관계에서 발생하다보니, 피해자 스스로 이것이 범죄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박현정, 2015).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폭력 발생비율은 외국의 경우 15~78%(Koss, 1988; Muehlenhard & Linton, 1987; Rapaport & Burkhart, 1984), 국내에서는 약 8~33.8%(서혜경, 2014; 임혜진, 2004; 조현각, 2001; 현정혜, 2006)를 보고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폭력을 경험한 후 적극적인 대응책을 모색하기 보다는 재발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들 중 다수는 피해를 경험하고도 ‘사귀는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혜경, 2014)되고 있어 폭력이 반복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데이트 성폭력은 청소년기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신체·정서·성적 폭력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의 데이트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은 매우 심각한 수준(서경현·이영자, 2001)이다.

2. 대학생 데이트폭력의 실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는데, Mskepeace(1981)의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화되었다. 그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21.2%가 데이트 관계 내에서 폭력에 관련되어 있거나 지속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그 외에도 대학생의 25~35% 정도가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 경험을 보고하였다(Bouchey, 2007; Ely, Dulmus, & Wodarski, 2002; Seiffge-Krenke, 2003). 또한 여대생의 91%가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였으며(Neufeld et. al., 1999), 15~25%가 성적 폭력 경험(Chen, 1996; Jezl et al., 1996; Koss et al., 1987)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데이트폭력의 형태는 신체적 폭력에서 심리적 폭력, 성적폭력, 언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에는 미국 전체 고등학교 학생 10명 중 1명이 청소년 데이트폭력 피해자라는 연구가 이어졌다(Gressard & Swahn & Tharp, 2015).

국내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2009)에서 서울지역 11개 대학의 796명(여성 61.85%, 남성 38.2%)을 대상으로 벌인 '서울지역 대학생 데이트폭력 실태조사' 결과에서, 신체적 폭력은 여성 32.7%, 남성 41.5%, 정서적 폭력은 여성 77.8%, 남성 69.4%, 언어폭력은 여성 61.4%, 남성 59.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중 4명꼴로 음담패설,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성관계 강요, 강간 등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내 기분에 관계없이 키스한 적이 있다'(여 24.2%, 남 17.3%),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가슴과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여 15.6%, 남 6.2%), '성관계를 강요받았다'(여 12.1%, 남 6.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성폭력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해온 이유에 대한 질문에 여성 응답자의 절반은 '항상 그러는 것은 아니어서'라고 대답한 반면, 남성 응답자의 45.9%는 '사귀는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므로'라고 대답해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한국여성의전화, 2009).

또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3)에 따르면 이성교제를 경험한 학생의 3명 중 1명이 데이트 폭력을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2014년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 경험에 대한 조사 결과 72.3%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통계결과를 발표하였다(박현정, 2015). 이처럼 청소년기부터 많은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 문화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성인기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의전화(2014)에서 가정폭력상담소 및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된 상담은 총 2,269건으로 나타났으며, 애인이나 과거의 애인, 채팅 상대자 등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의 건수는 215건이었다<표1 참조>. 피해자의 대부분이 여성이었으며, 연령은 3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주로 20대와 30대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는 한국여성의전화에서 상담건수를 위주로 조사한 것으로 데이트 폭력의 극히 일부분을 말해주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하여 단순히 미혼남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연령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박현정, 2015).

<표 1> 2014년 데이트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연령¹⁾

	합계	13~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미파악
피해자	215	7	57	34	19	9	1	88
	100%	3.3%	26.5%	15.8%	8.8%	4.2%	0.5%	40.9%
가해자	215	5	23	28	16	9	2	132
	100%	2.3%	10.7%	13.0%	7.4%	4.2%	0.9%	61.4%

2014년에 발생한 데이트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정서적 폭력이 피해자의 8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신체적 폭력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관계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유지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형태로 발생하는 폭력은 피해자의 일상에 깊이 침투하여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된다(박현정, 2015). 데이트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피해자는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분노, 혼란,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손상을 입게 된다(Kasian & Painter, 1992; Hanley & O'Neill, 1997; Simonelli & Ingram, 1998). 이러한 피해가 지속될 시에는 장기적으로 낮은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을 갖게 되며

1) 한국여성의전화(2015),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 박현정(2015) 재인용.

(Cascardi & O'Leary, 1992; Aguilar & Nightingale, 1994; Magdol et al., 1997), 장기간의 심리적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Dobash & Dobash, 1981; Kasian & Painter, 1992).

3. 데이트폭력 가해의 원인이론

데이트 폭력은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의 불안정한 정신건강과 폭력문화의 대표적인 예로 드러나고 있다. 오늘날 경쟁사회 구도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자존감 등에 대한 인식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에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이 이성 관계에 대한 과도한 집착으로 나타나 현실의 무력감을 상대에 대한 통제감으로 분출(하재근, 2015)하는 것이다. 특히 데이트폭력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기도 한 갈등상황에서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의 잘못된 표출형태가 폭력(박현정, 2015; 서경현, 2009)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 행위의 원인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 요인, 가정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박현정, 2015)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도 하고, 사회학습이론, 좌절공격이론, 자원이론, 페미니즘이론, 체계이론, 교환이론, 갈등이론 등 다양한 이론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이 검증(김예정·김득성, 1999)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이론 중에서도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데이트폭력에 이르기까지의 폭력의 연결성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과 젠더감수성과 관련된 페미니즘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학습이론

가정폭력의 경험과 학교폭력의 경험이 성인기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로는 Riggs와 O'Leary(1989)가 제안한 사회학습이론(Social learning theory)이 있다(박은영, 2014). 사회학습이론은 부모로부터 폭력 피해를 경험했거나 부모 간에 행해지는 폭력을 목격한 아동이 모

방학을 한 후 성장하여 여러 인간관계 상황에서 폭력 행위를 하고 그것이 이성 관계에서도 표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한다. 즉 사회학습이론은 타인에 대한 직접적인 관찰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새로운 행동을 빠르게 학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Banbura(1973)는 관찰학습의 개념을 통해 공격성은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아닌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모델링(Modeling)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자신과 친밀한 사람이 행하는 공격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학습하여 공격성에 대해 무너지거나 강화를 일으켜 공격적 성향을 불러 올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자녀가 강화를 통해 또래관계 내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러한 폭력적인 갈등 대처방식을 재현하는 것이다(김소영, 2010; 양혜원, 2002).

Riggs와 O'Leary의 사회학습이론 모델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다른 유형의 폭력들과 데이트 폭력에 관심을 가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지지받아 왔다(서경현, 2009). 이러한 사회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가정폭력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가설이 '폭력의 세대 간 전이(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이다. 가정 내에서 부모로부터 직접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 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목격하며 성장한 경우 이 자녀는 성인기에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Jaffe, Wolfe, & Wilson, 1990). 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는 것보다 부모사이에 일어나는 폭력을 목격한 자녀가 이후 심각한 부부폭력과 연관될 가능성이 높다(신혜섭, 2006; 장희숙, 2002; Kalmuss, 1984). 따라서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이 세대 간에 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부모가 가정 내에서 폭력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아동은 폭력이 최선의 문제해결 방식이라고 인지 할 수 있고, 가정 내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신체적 처벌은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일시적으로는 행동 수정에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즉 아동기 체벌 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못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무언의 규칙을 가지게 되

고 이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도 그러한 규칙을 적용하게 된다(김소영, 2010; 최지현, 2005; Simons & Gordon, 1998)는 것이다. 이처럼 가정폭력 경험은 자녀의 공격성을 증가 시키고 대인관계의 문제해결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모델이 된다(김소영, 2010; 서경현, 2009).

그동안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의 주요 설명요인이 된다는 여러 연구들(정혜정, 2003; Markowitz, 2001; Rosenbaum & Leisring, 2003; Wolf & Foshee, 2003)을 통해 아동기에 받은 학대경험은 그들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부모가 보이는 부적절한 문제해결방법을 자신의 기제로 사용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최지현, 2005).

부모와 관련된 경험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방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Bandura(1973)는 설명하고 있다. 부모 간에서 행해지는 가정폭력을 목격한 사람이나 아동학대 피해경험이 있는 사람이 가정폭력을 행할 가능성이 더 크고(Campbell & Humphrey, 1993), 청소년기에 비행이나 문제행동을 더 하며(조미숙, 2003), 학교폭력에도 더 연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정옥·박경규, 2002).

결론적으로 사회학습이론을 근거로 하여 가정폭력의 경험은 성장 후 타인에게 행하는 직접적인 신체폭력이나 간접적인 정서폭력의 영향요인이 될 수 있으며, 친밀하고 의미 있는 타인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은 데이트폭력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동기 폭력경험과 데이트 폭력 사이에 연관성을 찾아내는데 실패한 연구들(Comins, 1984; Stets & Pirog-Good, 1987; Follette & Alexander, 1992; Riggs & O'Leary, 1996)이 있으며,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에서도 다양한 결과도 출되었다.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과 부모 간 폭력의 목격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었으며(신혜섭·양혜원, 2005; 안귀여루, 2002), 부모 간 폭력의 목격이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 데이트 폭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기도 하였는가하면(정혜정, 2003), 부모 간 폭력의 목격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는 연구들(신혜섭, 2007)이 있다.

조사대상자의 지역과 학교구성이 다르고 학대 및 데이트폭력의 변수구성과 분석방법도 차이가 있어 정확한 비교는 힘들지만(조준범·이현, 2013), 이렇게 서

로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조절하거나 매개하는 다른 변인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및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이들을 조절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페미니스트 이론

페미니스트 이론은 성(gender)과 힘(power)에 초점을 두고 폭력을 설명한다(Yllo, 1993). 이 이론은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에서 폭력이 사용되는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이데올로기 내에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한다. 즉 가정이라는 범위 내에서 힘 있는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이다(김민지, 2014).

Yllo(1993)는 여성의 지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에서 폭력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은 지역에서는 여성을 그 자리에 묶어 두기 위해 폭력이 필요하며, 여성의 지위가 매우 높은 지역에서는 가부장적 구조가 붕괴해가는 데에 대해 오히려 남성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폭력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Yllo, 1993). 페미니스트 이론에 의하면 남성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결코 개인적이거나 가정적인 문제가 아니며, 역사적·문화적으로 존재해온 남성 지배 체계이자 정치적인 문제(Dobash, R. E., & Dobash, R. P., 1979)로 간주한다.

특히 현대사회의 관계 속에서 배제되고 권력에서 소외된 남성일수록 남성성의 물리적 표현을 통해 남자다움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커진다(이나영·허민숙, 2014). 이러한 폭력을 Chodorow(2011)는 ‘남성다움을 실현하고자 하는 폭력, 또는 남성성의 폭력’(masculine violence)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폭력은 결국 힘없는 자아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절망감이나 증오, 분노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성과 자아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공격이자 자아에 대한 공격을 통해 남성은 반복적으로 ‘남자다움’을 확인받고자

하지만 결코 보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공격성’은 단순히 개인이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 자아를 구성하는 과정과 연관된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투쟁의 장이다(Chodorow, 2011).

Heise(1999)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이 강한 사회일수록 사적영역에서 개인 간의 폭력이 쉽게 용인되며, 여성이 상대적으로 위험에 처해질 확률이 높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부모 간의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같이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은 가부장적 문화와 관계가 있다고 본다. 실제로 남성이 주도적이고 우세하며 여성은 순종적이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관한 신념이 데이트 폭력 가해와 상관이 있다는 연구 결과(Lichte & McCliskey, 2004)가 이를 지지한다. 이러한 성역할 신념과 관련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조망은 가부장-불균형적인 패러다임(patriarchal-asymmetry paradigm)에서 기인한다(Johnson & Leone, 2005). 가부장-불균형 패러다임에서는 상대에게 군림하거나 상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심각한 가정폭력 혹은 데이트 폭력을 조장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에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Hamel, 2009).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심각한 데이트 폭력 피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인 문화와 불균형적인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사회에는 가부장적인 요소 혹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 아직도 잔존해 있기 때문에 가부장적이고 불균형적인 젠더 패러다임(서경현, 2009)을 중심으로 데이트 폭력을 조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리사 로펠(Rofel, 1999)은 젠더는 근대적 권력의 핵심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젠더는 권력을 강화시키는 방식뿐만 아니라 권력을 일상화하는 기능을 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이다(이나영·허민숙, 2014). 그러므로 젠더는 단순히 여성이나 남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가, 민족, 자본주의, 인종, 계급 등에 관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Rofel(1999)의 주장은 다양한 권력 관계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젠더와 권력의 다양한 형태들과 어우러져 있는 젠더 관계에 주목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남성 위주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성차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 등이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요인(김민지, 2014)임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이러한 젠더관점으로 폭력을 설명하는 연구는 가정폭력 중심으

로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연결선상에 있는 데이트폭력에 있어서도 이러한 젠더관점이 폭력을 설명하는 요인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성별 권력관계인 젠더와 데이트폭력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2절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족적 영향요인으로서는 성장기 시절 부모 간의 가정폭력 피해 및 목격 경험(김소영, 2010; 이충환·신준섭, 2015; Murphy, 1984; O'Keefe, 1998; Walker, 1983)을 들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가정폭력의 개념과 유형, 가정폭력의 목격경험, 아동학대 경험,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폭력 경험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타인에게 잠재적, 의도적으로 행사하는 물리력을 의미한다(김윤희, 2006). 이러한 폭력이 1차 집단인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했을 때 ‘가정폭력’이라고 부른다. 가정폭력은 1차 집단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므로 고정된 대상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로 행사되며, 가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묵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가정폭력을 단순히 신체적 폭력에 한하지 않고 정신적, 심리적, 경제적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2항에서 “가정구성원이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 관계를 포함한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

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캐나다 토론토 경찰청(2003)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에 대해 시도했거나 야기한 폭행·성폭행, 위협·협박, 범죄성 괴롭힘(스토킹 등),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불법적 간섭(강제감금 등), 기타 범죄행위로서 신체적·성적·정신적 위해를 가한 행위로, 상대방을 지배·통제하여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한 강압적이고도 위협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김민지, 2014). 또한 UN인권위원회의 여성인권관련 보고서(2000; 25)는 “가정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배우자(대부분 남편)가 종속적 위치에 있는 배우자(여성)를 위협·조정하거나 강요할 목적으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사용하거나 그러한 폭력을 사용하겠다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김수을, 2006). 최근 들어서는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Winstok, 2007)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 간의 폭력’을 의미하는 용어로는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 부부폭력(conjugal violence), 아내학대(wife abuse), 아내구타(wife battering), 아내폭행(wife assault) 등의 여러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김민지, 2014).

한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가정폭력의 유형은 상해, 폭행, 유기, 영아유기,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 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가정폭력 경험의 유형을 대상에 따라 아동학대(child abuse), 배우자학대(spouse abuse), 노인학대(elder abuse)로 분류(Hines & Malley-Morrison, 2005) 하기도 하며, 행위 행태에 따라 신체적 폭력(physical violence), 정서적 폭력(emotional violence), 성적폭력(sexual violence)으로 구분하기도 한다(Wallace, 2005). 본 연구에서는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이전의 경험을 회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세히 분류하지 않고, 아동학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 목격경험으로 나누어 가정폭력 경험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가정폭력 목격경험

가정폭력은 부모나 형제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는 직접적인 폭력과 부모 간·세대 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목격하는 간접적인 폭력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가정폭력 목격경험이란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가정 안에서 부모나 형제로부터 간접적으로 경험한 폭력을 말한다.

아동기에 경험한 부모 간의 폭력은 가정에서의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 뿐 아니라 부모사이의 폭력을 목격하여 간접적인 경험도 갖게 된다. 아동기의 부모 간 폭력 목격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정서적 학대라고 할 수 있으며, 부모 간 폭력의 목격으로 외상(trauma)을 경험하기도 한다(Brassard, M. R., Germain, R., & Hart, S. N., 1987). 부모 간의 폭력 목격은 그 상황에 함께 있으면서 폭력을 직접 경험할 수도 있고, 다른 공간에서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고, 부모가 입은 상해나 파손된 물건들을 보면서 폭력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최지현, 2005). 아동기에 듣거나 인지한 폭력이 간접적일지라도 18세 이하의 경우 정신이나 신체가 완벽히 발달 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레스(김소영, 2010)로 작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 간의 폭력 목격만으로 아동이 정서적,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고, 부모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우울, 불안, 위축 등에서 심각한 문제(양혜원 외, 2001)가 나타나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부모로부터 공격성을 학습하게 되고, 공격 성향과 잦은 비행의 가능성이 높아짐(김재엽, 1998; 조미숙, 1999)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부모사이의 폭력에 노출된 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현저히 낮은 문제해결능력이나 낮은 공감능력을 보임으로 사회적 능력이 떨어진다(Fantuzzo et al., 1989). 그리고 부모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공격적이고 수동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일이 적었으며, 부모사이의 폭력의 정도가 심각하고 노출 빈도가 높은 경우 예민성을 갖게 되어 상황이나 타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인식하는 사회적 기술이 떨어지는 것(최지현, 2005; Rosenberg, 1987)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직접적인 폭력을 경험하지 않더라도 폭력을 목격한 경험만으로도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성장 후에도 외상으로 남아 의식적·

무의식적 수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O'Keefe, M. Riggs, D. S. O'Leary, K. D.(1998)에 따르면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49% 이상이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42~48.2%가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신혜섭, 2006; 전화성, 2010).

2) 아동학대 경험

최근 부친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7살 아들의 사체 냉동 보관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의하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적극적인 가해행위 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서 학대 행위란 아동에게 가해진 행위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 혹은 복지를 해치거나 혹은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상해, 성적 행위 및 방임을 포함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초기에 아동학대를 신체적 학대에 한정하여 연구한 Kempe & Helfer(1972)는 ‘우연한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부모 또는 다른 보호자의 행위나 방임으로 신체적 상해를 입은 아동’으로 학대의 의도성과 신체적 상해에 중점을 두어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2013)에서 조사한 아동학대 사례유형별 통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가 3,160명(31%), 정서적 학대가 3,843명(37%), 성적 학대가 380명(4%), 방임이 2,848명(28%)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방임이 가장 많았었지만 2008년 이후 방임이 줄고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정혜(2006)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신체적 아동학대 경험 비율은 65.7%, 정서적 아동학대 경험 비율은 79.7%, 성적 아동학대 경험비율은 19.8%로

나타나 정서적 학대경험이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 경험은 데이트 폭력 가해경험(장희숙, 2002; 정혜정, 2003; 조춘범·이현, 2013; 최지현, 2005; 현정혜, 2006; Straus, 1990)과 데이트 폭력 피해경험(김옥수, 2005; 유선영, 2000; 현정혜, 2006; Riggs et al., 1990)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동기에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타인에게 더 공격적이며(Dodge et al., 1990), 아동학대는 아동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여 더 심한 폭력의 피·가해자가 되기도 한다(Dodge et al., 1990). 또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의 37%가 성인기에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신체적 폭력을 더 허용(Lisak, 1996)하고 있어 폭력이 세대 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소영, 2010).

2.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가정환경은 어떤 요인보다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 경험과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청소년도 그 정도가 높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높아짐을 지적하고 있다(김재엽·이순호, 2011; 이승출, 2012; 이정애, 2014; 임희복, 2002; Evans, Davies & Dilillo, 2008; Margolin & Gordis, 2000; McCloskey & Lichiter, 2003).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직접적인 폭력의 피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부모 간 폭력에 노출되기도 한다. 청소년의 폭력경험은 세상에 대한 시각, 인생의 목적과 의미,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 광범위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Garbarino, Kostenly & Dubrow, 1991; 임신일·이정미, 2013 재인용).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자녀들은 목격하지 않은 자녀들보다 우울, 불안, 염려와 같은 심리적 문제를 갖는 경우가 더 많고, 행동 상으로는 신체적 공격성과 일반적인 행동문제가 더 높으며(Evans, Davies & DiLillo, 2008),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높을수록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희복, 2002)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공격성을 증가시키고 공격성이 학교폭력 가해를 증가시키는 간접적

인 영향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엽·이순호, 2011; 이정애, 2014). 그리고 가정폭력 목격경험에서 언어·정서적 폭력과 신체·물리적 폭력 둘 다 학교폭력 가해행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어떤 유형의 가정폭력이든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한다(이승출, 2012). 즉, 부모 간의 갈등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자주 경험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학교환경에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학교폭력발생 원인에 있어서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청소년 비행에 가족구조보다 가족의 기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실증하고 있다(임신일·이정미, 2013).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이 자녀에 대한 통제를 안정적으로 하지 못하고 가정과 부모에 대한 유대 형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결국 자녀로 하여금 폭력행위를 비롯한 반사회적 행위에 가담하도록 한다(Parterson, Debarshe & Ramsey, 1989; 문지혜, 2015 재인용)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직접 및 간접경험과 폭력행동과의 관계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자녀들은 폭력을 모방하거나 폭력을 강화하고 보상하는 성향을 지니게 되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Breslau, 1991; Smith & Thornberry, 1995; 문지혜, 2015 재인용)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자녀들은 부모의 폭력행동을 모방하거나 학대로 인한 자신의 분노를 풀기위한 방법으로 반사회적 행동이나 폭력을 행사한다고 보고한 결과도 있다(표갑수, 2000).

폭력 가해행동을 하는 청소년들이 보이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공격적 행동은,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부모의 감시나 체벌방법과 같은 가정환경은 결국 자녀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김준호·노성호·고경김·최원기, 1990),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초래하는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장덕희, 2001).

이상의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의 관련성은 사회학습이론에 따른 부모행동의 모델링효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폭력에 대해 수동적이고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 학교폭력 상황에서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3.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폭력의 대물림은 사회학습이론으로부터 비롯된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에 의해서 반영된다고 보는 것이다.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가장 많은 모방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가 부모 간 폭력행동을 사용하는 것을 자주 목격할수록, 갈등해결을 위한 행동방식으로 폭력을 받아들이며 모방하게 된다. 부모 간 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많은 경우 자신이 이성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폭력행동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다(Bernard & Bernard, 1983).

아동기 학대경험이 많은 사람은 잘못된 행동을 처벌하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무언의 규칙을 갖게 되고 이후 유사한 다른 상황에서 아동기에 관찰한 행동규칙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신혜섭, 2006). 이는 장희숙(2002), 신혜섭, 양혜원(2005)의 연구에서도 지지되고 있으며,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 경험(유선영, 2000; 한정혜, 2006)과 데이트폭력 가해경험(김소영, 2010; 사공은희, 2007;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폭력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모 간 폭력 경험이 있는 집단에서 데이트폭력이 더 많이 행해지고 있고(김소영, 2010; 안귀여루, 2002; 최지현, 2005), 특히 부모사이의 폭력 목격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이 높았다(김소영, 2010; 정혜정, 2003).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간의 연관성을 밝혀내지 못하기도 하였다(Comins, 1984; Stes & Pirog-Good, 1989; Riggs와 O'Leary, 1996; 신혜섭, 2006 재인용). 또한 성장기에 부모가 서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하였거나, 어느 한쪽 부모가 배우자를 가해하는 것을 목격한 경험, 부모로부터 체벌 또는 폭력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성교제 시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rnard, 1983; Laner & Thompson, 1982).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정폭력의 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하거나, 부모 간의 가정폭력 목격 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폭력을 가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

특히 부모 간 폭력에 대한 피해 및 목격 경험은 성인이 된 후 데이트폭력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으며(서경현, 2004; 신혜섭·양혜원, 2005; 현정혜, 2006; Chapple, 2003; Coffey, Harold, Kris, Tonia & Robert, 1996; O'keefe, 1998), 부모 간에 폭력의 정도가 심하고 빈번도가 높을수록 아동을 대인예민성과 같은 사회기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Rosenberg, 1987)으로 보고되고 있다.

Riggs와 O'Leary(1989) 연구에서는 가정폭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데이트폭력의 실행수준이 높았으며 폭력의 세대 간 대물림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Walker(1983)는 원 가족 내에서 가족구성원 간 폭력과 통제를 경험한 여성이 현재에서도 가정폭력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Murphy(1984)는 데이트폭력의 피해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가족에서 성장할 확률이 높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Rada(2014)의 연구에서도 데이트폭력을 가해한 응답자의 35%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였고 53.7%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부모 간 가정폭력을 목격한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후 다시 폭력의 가해자가 된다는 연구결과(김소영, 2010; 사공은희, 2007;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들이 다수 보고되고 있다.

제3절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1. 학교폭력 경험

학교폭력경험은 청소년들이 갈등이나 욕구불만의 해소 또는 소속감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는 부적응적 태도나 문제행동에 대한 경험으로 이해되고 있다.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폭력과정을 학습하여 성장 후 더 쉽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학교폭력경험의 개념 및 유형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은 1970년 초 스웨덴을 비롯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스웨덴 내과 의사였던 Heinemann이 처음으로 또래간의 폭력문제를 연구하면서 ‘mobbing’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mob’은 원래 폭력에 개입된 익명의 다수를 가리키는 말로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못살게 구는 경우 모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Olweus, 1996). 그 후 Olweus는 1978년 그의 저서 ‘Aggression in the school; Bullies & Whipping Boys’에서 ‘bully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bullying’이란 용어를 강자가 약자에게 지속적으로 신체적, 언어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라고 설명하였다(Olweus, 1978; Perry et al., 1988). 이후 지속적으로 심각해져 가는 또래 간의 폭력은 ‘violence’라는 보다 적극적이고 강도 높은 행위로 설명되었으며, 이는 학교라는 장소를 고려해 ‘school viol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강진령·유형근, 2000; 김예성, 2000; 사공은희, 2007).

Olweus(2005)와 Salmivall(2010)은 학교폭력에 대해 괴롭힘과 폭력을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괴롭힘은 한 사람 혹은 다수가 자신을 방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며, 폭력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불편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신체나 무기를 사용하는 공격적인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3)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하였다. 또한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하며,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용린(2006)은 “학교폭력이란 학교 교내, 주변, 등하굣길, 집 주변, 학원 주변 등 물리적인 장소는 물론이고 교육과 관련된 장소 및 현장에서 부모와 교사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학생에게 행사한 정도가 심각한 유형무형의 모든 폭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학교폭력의 개념 및 범위는 폭력의 주체나 대상, 발생 장소,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된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뿐만 아니라 학교 주변까지 확대하여 포함시키고 있으며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모든 폭력을 포함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학교폭력에 관해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의 주된 초점은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분이 모두 학생인 경우로 국한된 협의의 개념에 둔다고 볼 수 있다(이상균, 1999; 사공은희, 2007).

2)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금품갈취, 언어적 폭력이나 협박과 욕설,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분류한 유형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강요 및 금품갈취, 괴롭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신체적 폭력이다. 신체적 폭력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력의 행사와 관련되며(문용린 외, 2006), 학교폭력의 전형적인 유형으로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태이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상해, 폭행, 감금, 약취·유인 등을 신체적 폭력으로 보고 있다. 학교 내·외의 신체적 폭력의 종류로는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위, 때리는 행위(다른 사람을 시켜서 때리는 행위 포함),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장난

을 가장해서 심하게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성적 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학용품 등 물건이나 흥기를 이용해서 상해를 입히는 행위, 신체부위에 침을 뱉는 행위, 한 학급학생을 모두 운동장으로 불러내어 기합을 주는 행위, 돈이나 물건을 빼앗거나 감추는 행위, 성폭력 등을 들 수 있다(조주영, 2015).

둘째, 언어적 폭력이다. 언어적 폭력은 물리적인 힘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감정 등에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사용에 중점을 두는 것(김준호 외, 2000)을 의미한다.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는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을 언어폭력으로 보고 있다. 언어적 폭력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위, 욕설을 하는 행위, 헐담을 하는 행위, 조롱하거나 비웃는 행위, 모욕을 주는 행위(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모욕하도록 설득하는 행위 포함),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위,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특정행동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행위, 본인이 싫어하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퍼뜨리는 행위, 부당한 일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집단따돌림이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따돌림의 정의에 대해 따로 명시한 이유는 아마도 따돌림의 정의 역시 모호함에도 최근 학생들의 또래 관계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왕따’로 표현되는 집단따돌림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대화거부, 모함, 약점 들추기, 공개적 비난, 시비 등의 방법으로 특정인을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폭력적 행위의 범위가 훨씬 광범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규정한다(경찰청, 2001).

넷째, 강요 및 금품갈취이다. 금품갈취는 일반적으로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김준호 외, 2000). 학교폭력예방방법에서는 공갈 등이 금품갈취에 해당된다. 금품갈취는 학교 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이나 물건을 아무 이유 없이 강탈당하는 것을 말하며 주로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학교 중퇴자나 불량학생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액을 갈취, 폭행 및 금품갈취, 착

용하고 있는 의류, 신발, 가방절취, 피해자를 협박해 집이나 부모에게서 돈을 훔쳐오게 하는 행위 등이 있다(조주영, 2015).

다섯째, 괴롭힘이다. 괴롭힘은 특정 상대방로부터 반복적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폭력이나 신체적 폭력과 구분된다. 물론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 등도 괴롭힘의 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심리적인 억압이나 강제로 노무를 제공하려는 특정 유형을 지칭하는 용어이다(조주영, 2015).

3) 학교폭력의 원인

그동안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학습이론적 관점에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 특히 부모나 또래집단으로부터의 학습 및 모방을 통해 폭력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관점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이미영, 2015).

학습이론적 관점에서 가정폭력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심리적인 측면에서 공격성, 자기파괴성, 자아존중감, 자아실패감, 불안, 우울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정적 정서와 폭력성을 부모에게 배움으로써 또래폭력, 약물남용, 가출을 포함한 각종 비행과 범죄 및 사회적 일탈행위에 쉽게 연루될 수 있으며, 이러한 행동 특성이 성인기까지 이어지면서 다시 자신의 자녀나 배우자를 학대하게 된다고 한다(신선인, 2008).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피해아동들의 공격적 태도를 성인기까지 추적 조사한 연구에서 부모 간 갈등과 폭력을 경험한 것이 폭행, 유괴, 성폭행 및 살인 등 심각한 범죄행위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McCord, 1983; 신선인, 2008 재인용).

그 외에도 엄명용·송민경(2011)은 학교 내 학생들 사이에는 권력관계에 바탕을 둔,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권력관계 유형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간 역동이 학교폭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폭력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전제는 학교폭력의 지속적 발생은 이에 개입된 학생들이 즐기는 권력의 단맛(pleasures of power), 권력의 힘(capacities for power), 소속 욕구, 리더십 발휘, 지배력 행사의 즐거움, 타인에 대한 일상적 통제 욕구 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Bansel 외, 2009)를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학생들은 성인들의 개입이 전혀 없는 가운데 자신들만의 권력관계 순위 설정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작동되는 조절기제나 분류체계는 이미 학생들 내부에 자리해 있고 또 학생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는 것이다(Bansel 외, 2009). 따라서 학교폭력 또한 가정폭력의 연장선에서 설명 가능하며, 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

청소년의 폭력을 설명하는 사회학습이론에서 인간의 공격성은 다른 형태의 사회적 행동처럼 자극 강화 및 인지적 통제에 있는 학습된 행위로, 관찰과 모방으로 학습이 가능하며 강화를 받을수록 더욱 자주 발생한다고 보았다(Bandura, 1973). 청소년의 경우 다른 사람의 폭력 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새로운 폭력 행위의 기술을 습득하고 폭력 행위에 대한 억제력이 감퇴되어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 없이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특히 학교폭력에 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경우를 동시에 설명할 수 있는데 가해 학생의 경우 학습을 통해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피해학생의 경우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서 동시에 이 과정에서 폭력적인 행위를 습득하게 되어 다른 학생에게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김난주, 2013). 사회학습이론에서 관찰학습(Observational Learning)이 다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이 받은 강화과정을 보았을 때 일어나며 이 과정을 대리적인 보상 혹은 대리적인 경험이라고 한다(조영조, 2013; Bandura, 1997; Renner, 2005).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청소년들은 점차 가정보다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므로 이들에게 주된 사회적 환경은 가정보다는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기의 주된 학습장소가 될 수 있어 폭력적인 환경에 노출된 채 성장한 피해자는 폭력의 피해와 사용방법을 익힘으로써 더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늘어나게 된다.

폭력적인 환경에 대한 노출 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O'Keefe, 1997), 형제, 자매, 친구, 학우들과의 폭력 가해 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으며(Spencer & Bryant, 2000), 친구와의 신체적 폭력경험이 데이트 상대에 대한 폭력과 유의미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지혜, 2015; 사공은희, 2007; Cleveland, Herrera, & Stuewig, 2003; Schnurr & Lohman, 2008). 사공은희(2007)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의 신체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일수록, 교제기간이 길수록,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즉 친구들과 여러 형태의 폭력을 사용하거나 피해 경험이 많은 사람은 폭력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져서 이성교제 관계에서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폭력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게 되어 결국 폭력의 가해자가 되기 쉽다(김예정·김득성, 1999)는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에서, 학교폭력의 경험이 단기적인 경우에는 이러한 감정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자주 학교폭력을 경험 했던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되며, 나아가 이성교제나 결혼생활에서도 곤란을 겪게 된다(문지혜, 2015; 사공은희, 2007; Gilmartin, 1987)고 보았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경험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폭력 당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심리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성인이 되어 이성교제 상대자와의 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를 통해 성장기 폭력 경험인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 경험이 데이트폭력 행동에 대한 예측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4절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1. 젠더감수성

한국에서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개념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의

목적과 맥락에 따라 성인지성, 성인지력, 성인지적 감수성, 성별민감성 등 조금씩 다른 용어로 번역되어 사용되고 있다. 젠더감수성이 성 평등 의식이나 성인지적 관점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젠더문제를 여성들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인종, 계급, 종교에 따라 분리하여 개념화하는 것은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협소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장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젠더감수성의 구체적인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젠더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 젠더감수성의 개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젠더의 개념

초기 젠더 개념의 등장은 1950년대 정신의학자나 의료진들에 의해 양성이나 트랜스섹슈얼인 사람들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생물학적 성을 규명하는 Sex와 자신의 성역할을 나타내는 Gender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통해 이들을 ‘일치’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젠더는 여성과 남성의 양성체계가 아니라 인도의 히즈라와 같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복수의 형태로 사용되었고 여기에서 젠더는 성별 위계관계를 내포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여성주의자들이 젠더 개념을 발달시키면서 젠더에 대해 차별과 위계의 개념을 포함하게 되었다(김은실, 2008a).

남녀 간에 심리적·사회적·문화적 성별 차이를 의미하는 젠더(Gender) 개념은 기존의 신체적·생물학적인 성(Sex)의 개념을 벗어나서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된 결과이며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여성주의자들의 인식은 여성과 남성 간의 위계화된 권력관계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었다(이진영, 2011).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젠더를 사회적인 성으로 무리 없이 이해하고 있지만 용어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사회적 성과 생물학적 성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 사람들은 젠더 간 권력 문제를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하

기 때문에 흔히 젠더라는 용어는 여성들과 남성들의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 접근 가능한 자원들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Maitrayee Mukhopadhyay & Marguéite Appel, 1998; 이진영, 2011 재인용).

젠더는 단지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그로 인한 권력관계만을 가리키는 개념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이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르게 구분되고 있는 차별적이고 불평등한 과정, 규범, 문화, 상징체계 자체에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젠더는 여성성과 남성성의 젠더 규범을 의미하는 것이며(이진영, 2011), 생물학적 차이보다는 사회, 문화적 영향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 따라서 젠더에 대한 사회 문화적인 기대치를 충족시키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습득해 나가는 사회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성역할의 사회화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이 더 순응적이고 타인에 의해 영향을 잘 받으며 언어능력이 더 높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지배적, 공격적, 관계적이며, 시각능력이 높다고 한다. 특히 남성을 언어적 메시지를 힘에 기초해서 해석하지만 여성은 관계에 기초해서 해석하는 등의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고 남녀 간의 평등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의미가 희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최근 여성주의자들은 ‘여성’이 아니라 ‘젠더’를 분석적 범주로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고 있으며, 성 평등을 제도화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구조적 변화의 노력을 해오고 있다(이재경 · 이은아, 2010).

2) 젠더감수성의 개념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 평등을 추구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노력을 펼쳐오고 있지만 젠더감수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연구목적에 따라 번역도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젠더감수성을 성주류화(김경희, 2002; 신경아, 2004), 성인지력이나 성인지성(안상수 외, 2009; ; 정해숙 외, 2004), 성인지와 성별감수성을 구

별된 개념(송인자 외, 2006)으로 보는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성인지(gender sensitivity)’란 여성과 남성의 차이와 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성차별 개선에 대한 실천의지를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하고 있으며 ‘성별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정책과 사회조직 문화, 그리고 주체성 간의 관계를 맥락적으로 성찰하고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차별적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리킨다(송인자 외, 2006).

또 다른 연구에서 송인자(2009)는 성인지성(성인지력, gender sensitivity, gender awareness)을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반영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념화하고 있다(송인자, 2009). 이처럼 성인지성과 성인지력을 같은 개념으로 보기도 하였지만 안상수 외(2009)는 ‘성인지성’을 성별 간의 불균형에 대한 이해와 지식,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 내는 민감성 등을 의미하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는 반면 성인지력(gender awareness)은 성인지성(gender sensitivity), 성평등의식(gender egalitarianism), 실행의지(behavioral or practical intention) 등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젠더감수성(gender sensitivity)’는 연구자에 따라, 그리고 연구목적에 따라 성인지, 성인지력, 성별감수성 등으로 번역되어 각기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젠더감수성’은 젠더의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되는 정서적 태도 및 가치와 관련이 있으며(안상수 외, 2009; 정해숙 외, 2004; Miers, 2002), 존재하는 젠더 차이들, 이슈들, 불평등을 지각하고 이것들을 전략 및 행동으로 통합하는 능력(Newman, 2003)이고, 젠더에 대한 인지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가장 폭넓은 범위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감수성과 개방성을 필요로 한다(UNESCO, 2002).

또한 젠더감수성은 성 고정관념에 대해 새로운 젠더의식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는 것(조옥라, 2003)이며, 여성에 대한 ‘우선지원’이나 ‘배려’를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여성과 남성에게 끼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모든 ‘차별’의 문제를 ‘차이’에 대한 인식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의지이자 문화

적 감수성(김영옥 외, 2005)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은 남녀 간의 격차에 대해 보다 분석적이고 비판적이며 탐구적인 젠더의식에 이르기 위한 기초 의식(강선미, 2005)이며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으로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자기성찰, 비폭력,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등을 의미(이진영, 2011)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을 ‘성차별주의와 젠더 이분화에 대하여,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젠더에 대한 자기성찰, 젠더비폭력, 젠더에 대한 개방성을 문화적으로 감지하고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젠더와 폭력

폭력은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빚어지는 산물이다. 폭력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 통제, 착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약자가 항상 폭력의 피해자가 되어 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적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위계적인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와, 여성이 가진 부족한 경제·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경향이 많다(Manjoo, 2011).

UN은 지난 1993년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UN Declaration of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 처음으로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젠더기반폭력이란 단어는 폭력의 근본 원인이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역할에서 비롯됨을 나타낸 것이다. 이후 ‘Unite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캠페인을 주창하면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조되었다.

젠더기반폭력은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할당된 성적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에 반하여 행해지는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일컫는 포괄적 용어다. 여기에는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의 개념이 포괄되어 있다(Majoo, 2011). 일반적으로 젠더기반폭력은 신체에 대한 폭력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이 동시에 결합되어 발생하고 있다(Nussbaum, 2005).

Manjoo(2011)는 젠더기반폭력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는 사회적 신념과 불평등한 권력관계가 구조적 폭력의 형태로 작동한다. 둘째, 남녀불평등을 바탕으로 한 여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 제한도 폭력을 부르는 요인이 된다. 셋째, 젠더 폭력의 기저에는 권력욕과 통제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넷째, 해당 사회의 공식적, 비공식적 사회제도가 차별적인 맥락을 영속시키고 그 차별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득을 얻는 자가 폭력이라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위계를 유지한다.

이처럼 젠더에 기반한 폭력은 비단 여성에게 향하는 남성의 폭력을 의미하는 개념이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에게 할당된 성역할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공인된 방식으로 남성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남성이 여성에 대한 지배나 폭력 행사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Brines, 1994) 것을 볼 때, 젠더감수성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및 학교폭력의 주요한 영향요인이 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폭력에 관련된 모든 변수들 가운데 가장 일관된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성별(이윤호, 1997)이며, 사회구조적인 변수들 중에서도 성별 차이는 비행의 차이를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이다(Hindelang, 1978; Oxford, 2000). 일반적으로 여자가 남자에 비해 비행을 덜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폭력에 있어 성별 차이는 그 외 다른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통제이론이나 차별접촉이론 등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다. 청소년 비행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이론들은 본래 남자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여자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행의 성별 차이를 밝혀내고 여자청소년의 비행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의 필요성이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다(유영현·김지연, 2009). 그 중에서 Hagan et. al.(2004).은 페미니스트적인 관점과 갈등이론 및 통제이론의 요소들을 통합시킨 권력통제이론(PCT)을 통해 폭력의 성별 차이를 설명(Akers & Sellers, 2004)하고자 하였다. 그는 부모의 직장과의 가정의 권력관계에 초점을 두어 직장에서의 부모의 지위가 가정 내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이 자녀에 대한 통제에 있어 성별의 차이를 가

저오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자녀들의 위험선호도 및 성별과 비행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Belknap, 2009).

Hagan et. al.(2004)은 구조적 가부장제와 도구적 통제의 관계에 가부장적 성 역할에 대한 믿음을 매개변수로 추가시켜 남녀에 따른 청소년 비행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또한 유영현·김지연(2009)은 성장변화에 따른 비행의 성별차이를 분석하여 남자청소년의 경우 인생 초기에 문제행동을 일으킨 아이는 청소년기에도 지속적으로 물리적 폭력이나 비행을 저지를 위험성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 비행의 문제에 있어 성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학교폭력 역시 젠더에 기반한 폭력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이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의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젠더감수성과 데이트폭력 가해

젠더감수성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뿐 아니라 성별 체계가 사회 문화적으로 권력화되어 있다는 것을 감지하는 능력으로 정의(홍미리, 2005)되고 있다. 젠더감수성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성 고정관념에 의하여 억압되어진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돌이켜보고 새로운 방식의 소통을 하는 연습’으로 확장시키기도 한다. 젠더감수성은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성별이 체계적으로 권력화되어 구성되었다는 것을 감성적으로 느끼는 과정이며, 연습을 통해서 억압된 자신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은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면서 자신을 해방시키고 나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조옥라, 2003). 따라서 젠더감수성은 권력관계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가는 과정이면서 상상력 그 자체(홍미리, 2005)라고 할 수 있다.

Thompson & Mcgovern(1995)은 만연한 성차별주의를 의식하고 확장된 젠더감수성을 창조함으로써 비판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젠더감수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주체의 의지가 개입하여 창조하는 과정인 것이다. 위계적인 성역할로 가

득 찬 남녀관계에서 여성이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일상생활에 만연한 차별적인 경험들이 드러날 수 있고, 젠더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성별권력관계가 부당하다는 것을 비판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홍미리, 2005)는 것을 의미한다.

데이트폭력의 경우 가정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며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또한 ‘폭행이 발생하고 난 후 가해자의 반성과 사과에 따른 피해자의 용서, 이후 또다시 폭행이 가해지는 패턴’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면서 상습폭행으로 발전하고 더 나아가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스토킹을 비롯하여 심지어는 살인에 이르기까지 잔인한 사건으로 나아가는 심각한 형태를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박현정, 2015)에서 가정폭력과 유사하다 하겠다.

이러한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폭력문화와 그 처우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부족으로 기인하고 있으며, 부부폭력이나 데이트폭력관계는 위계적인 성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폭력의 피해자가 폭력관계 발생단계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역할에 저항한다면 쉽게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젠더에 기반한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에 있어 아내의 성역할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무조건 수용하게 된다면 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013년 미국의 성불평등지수(GII)를 활용하여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수준의 남녀불평등과 폭력과의 관계를 페미니즘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분석한 연구(Gressard · Swahn · Tharp, 2015)에 의하면 젠더지배적인 남성보다 여성의 피해자에게서 데이트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부관계나 데이트 관계에서 위계적인 성역할이 수행되는 일상은 지배하고자 하는 힘과 저항하고자 하는 힘이 공존하는 공간이며, 이들은 성별체계에 맞서면서 젠더감수성을 확장시키기를 기대 한다. 이러한 권력관계 내에서는 피해자가 성별권력관계에서 피지배자가 되어야 하는 취약함을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폭력을 성별권력의 문제로 해석하고 이를 인식하는 것은 곧 젠더관계

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젠더감수성과 여성의 저항이 정적인 상관을 가지며 상호 순환(홍미리, 2005)한다고 볼 때 일상에 뿌리 내린 성별권력을 감지하고 인식하는 일은 데이트폭력 이후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폭력의 순환을 끊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데이트관계에서의 젠더에 의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이동하여 젠더감수성을 회복하는 것은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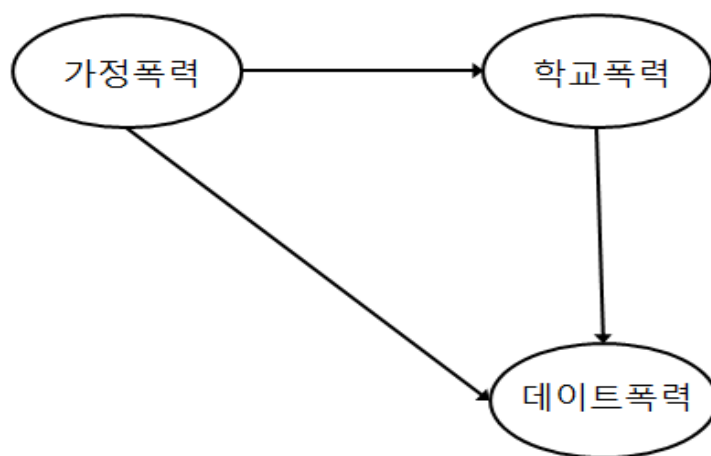
제3장 연구방법

제1절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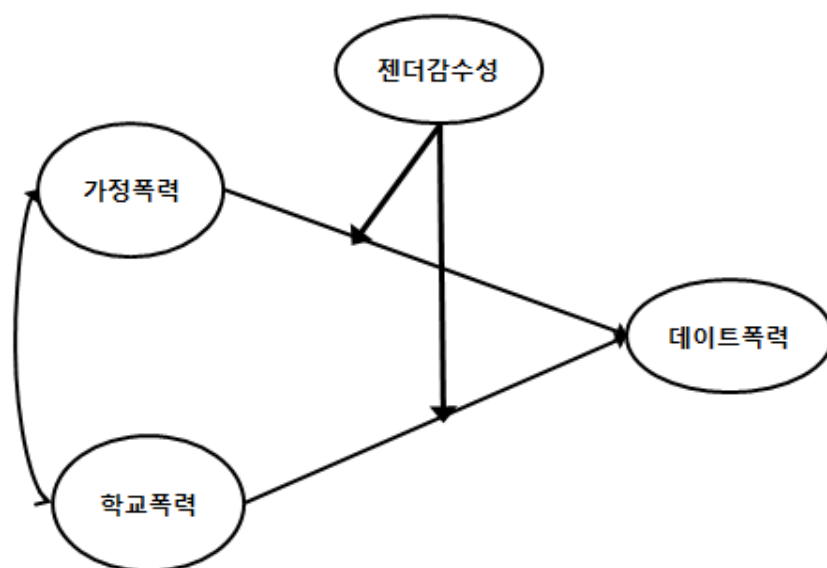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대학생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변수 간의 경로와 관계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두 개의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먼저 [그림 1] 매개효과 연구모형은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과 학교폭력 경험을 거쳤을 때의 간접적인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여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통하여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폭력의 연결성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그림 2] 조절효과 연구모형은 가정폭력경험 및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각각의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매개효과 연구모형



[그림 2] 조절효과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문헌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변인 간의 경로와 관계를 바탕으로 제시된 매개효과 연구모형과 조절효과 연구모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우선 매개효과 연구모형에 의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은 학교폭력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4 >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을 매개하여 데이트폭력 가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절효과 연구모형에 대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5> 젠더감수성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6>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가설 7>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의 관계 검증 및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한 가설적 모형을 토대로 하였으며, 횡단적인 자료수

집에 의한 양적조사방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한 연구대상의 모집단은 현재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표본의 추출방법은 모집단이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9개 구의 22개 대학 중에서, 구별 대학교 및 전문대학 각 한 학교씩 할당하여 15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대학교 내에서 최대한 다양한 학과와 학년을 포함하도록 하여 4년제 대학교 7개교 700부, 전문대학 8개교 700부로 할당(Quota)하여 유의표집(Purposive Sampling) 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2016년 3월 7일부터 2016년 4월 2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자와 사전에 설문조사에 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은 조사요원이 함께 실시하였다. 데이트를 경험한 대학생에 대한 실증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자신이 경험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의 경험을 회상하여 자기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절차는 먼저 예비조사를 통하여 설문시간과 문항의 이해도 등을 고려하여 문항수정 절차를 거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설문지 1,362부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전혀 없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1,136부를 분석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변수의 이상치를 파악할 수 있는 왜도(약4~6사이)와 첨도(약20~50) 수치가 가정폭력 및 데이트폭력가해 변수에서 너무 높게 나타났다(왜도: 4~6, 첨도 20~50). 이러한 결과가 분석에 미칠 왜곡된 영향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탐색을 통해 극단 값을 보인 84명의 사례를 제외한 1,052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대상자의 산출근거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산출근거

표집대상구분	산출근거	분석대상(명)
모집단	4년제 대학교 7개교 700부, 전문대학 8개교 700부 (할당표집, 유의표집)	1,400
연구 모집단	수집된 설문지	1,362
표적분석집단	이성교제경험 있는 대상(불성실한 응답 제외)	1,136
최종분석집단	극단치 제외	1,05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 <표 3>과 같다.

최종분석에 사용된 1,052부의 인구 사회적 특성을 보면 성별에서는 남자가 51.9%(546명)로 나타났으며, 여자는 48.1%(506명)로 남자가 조금 더 많이 응답 되었으나 성별 분포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21~22세’에서 30.3%(319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3~24세’가 26.7%(281명), ‘19~20세’ 22.1%(232명), ‘25~26세’ 12.8%(135명), ‘27세 이상’이 85명(8.1%)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유형에서는 ‘4년제’에서 54.8%(577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년제’ 36.2%(382명), ‘3년제’ 8.9%(94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성교제 기간에서는 ‘1년 미만’에서 51.1%(516명)로 가장 많은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다음으로 ‘1~2년 미만’ 27.3%(276명), ‘2~3년 미만’ 9.2%(93명), ‘4년 이상’ 8.1%(82명), ‘3~4년’ 4.3%(43명)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빈도	비율(%)
성 별	여	506	48.1
	남	546	51.9
나 이	19세~20세	232	22.1
	21세~22세	319	30.3

	23세~24세	281	26.7
	25세~26세	135	12.8
	27세~30세	60	5.7
	30세 이상	25	2.4
대학유형	2년제	381	36.2
	3년제	94	8.9
	4년제	577	54.8
이성교제기간	1년미만	516	51.1
	1~2년미만	276	27.3
	2~3년미만	93	9.2
	3~4년미만	43	4.3
	4년이상	82	8.1

제3절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for Windows와 AMOS를 사용하여 아래의 분석절차에 따라 시행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y analysi)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확인된 변수들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계수인 Cronbach' α 값 및 개념신뢰도, AVE(평균분산추출)을 산출하였다. 개념신뢰도는 .70이상, AVE는 .50이상이면 집중타당도가 있다고 할 수 있다(우종필, 2012).

셋째, 연구모형의 다변량 정규분포성을 검토하기 위해 왜도(skewness)와 첨도(kurtosis) 값을 산출하였으며 정규성에 크게 위배되는 극단치는 데이트 탐색을 통해 이상치를 제거하여 사용하였다.

넷째, 가설검증에 앞서 주요 변인에 대한 상관 및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 및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연구모형에서 새롭게 산출되는 상호작용항은 주효과변수와 조절효과변수의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하여 지표변수들을 각각 표준화시켜 사용하였다. 또한 조절효과가 확인된 경우 조절효과의 구체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조절변수의 평균 및 $\pm 1SD$ 세 집단의 단순기울기 검증을 실시하여 그림으로 도식화시켰다. 연구모형의 모수추정은 최대우도법(M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하였으며,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상대적 적합지수인 TLI(Tucker-Lewis Index)와 CFI(Comparative Fit Index), 절대적 적합지수인 GFI (Goodness-of-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값을 통하여 각각 살펴보았다.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95% 신뢰구간의 Boot CI 값을 제시하여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붓트스트래핑의 샘플 수는 1000으로 하였다.

제4절 측정도구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분석 전에 구성개념의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을 요구한다. 신뢰도는 측정도구가 측정하려는 것을 측정오차 없이 일관성 있고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문항의 내적일관성을 확인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구한다. Cronbach's α 값의 판단기준은 적어도 0.6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구성개념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factor analysis)이나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게 된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집중타당도(convergent validity)는 표준화 요인적재량(β)이 적어도 0.5 이상이어야

하며 통계적으로 유의($C.R.>2.0$)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와 확인적 요인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1. 독립변수 : 가정폭력경험

가정폭력경험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한 아동학대와 부모 간 가정폭력 목격경험을 포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가정폭력 척도는 Straus(1979)의 CTS(Conflict Tactic Scale)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Straus가 1998년 제작한 PCCTS(The Parent-Child Conflict Scale) 척도를 최지현(2005)과 김소영(2010)이 수정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모로부터의 학대와 관련된 설문문항은 정서폭력 및 신체폭력을 부모로부터 경험했는지를 질문하는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으로 부모 사이에 발생한 폭력을 아동기에 목격한 경험을 질문하는 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들 문항을 2요인으로 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요인 부하량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부모폭력 목격경험 4문항과 부모의 학대경험 7문항이 최종 선정되었다. 가정폭력경험 척도는 전혀 없음(0점), 2~3년에 한두번(1점), 일 년에 한두번(2점), 한달에 한두번(3점), 주 1회 이상(4점)의 범주로 이루어진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의 학대경험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850, 가정폭력 목격경험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825로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535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C.R.>2.0$)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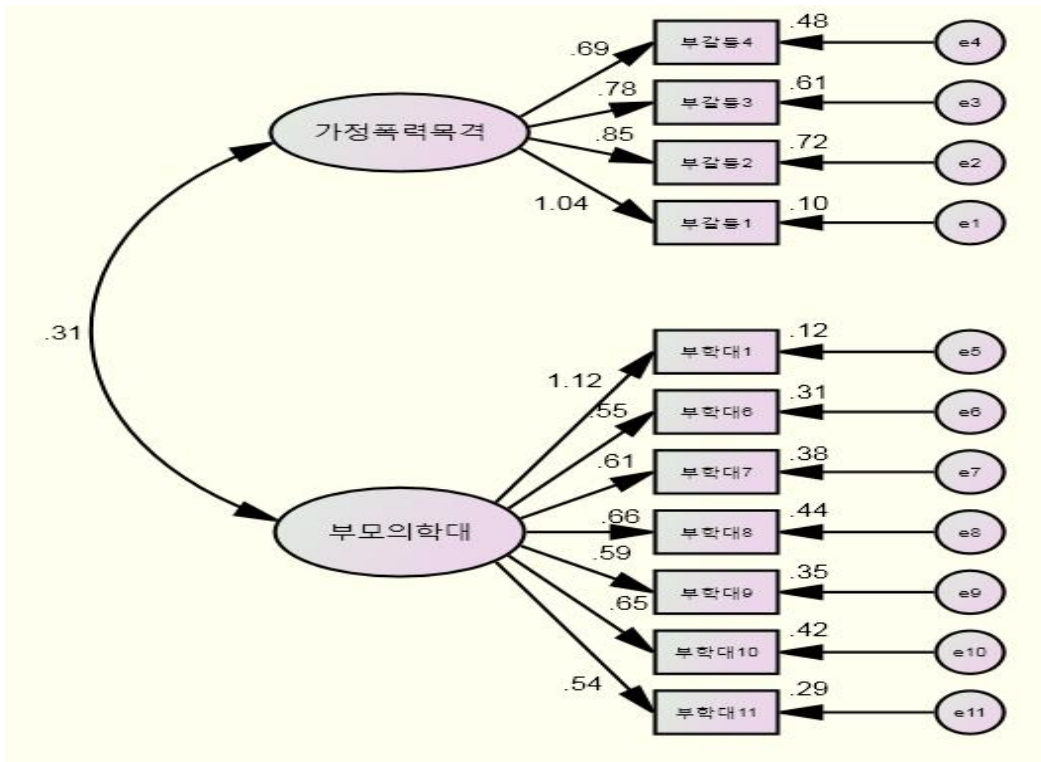
아래 <표 4>와 [그림 3]은 가정폭력경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4> 가정폭력경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분		B	β	S.E.	C.R.	Cronbach's α
부모의 학대경험	1	1.000	1.123			
	6	.734	.555	.081	9.111***	
	7	.634	.614	.066	9.581***	
	8	.417	.660	.043	9.633***	.850
	9	.471	.595	.050	9.496***	
	10	.429	.647	.044	9.717***	
가정폭력 목격경험	11	.482	.535	.053	9.183***	
	1	1.000	1.036			
	2	.395	.846	.027	14.858***	.825
	3	.265	.779	.019	14.316***	
	4	.229	.691	.017	13.663***	

Chi-square=365.409(df=40, p=.000), GFI=.942, TLI=.872, CFI=.907, RMSEA=.088

***p<.001



[그림 3] 가정폭력경험의 확인적 요인분석

2. 독립변수 : 학교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 척도는 배준우(2010), 김규학(2013)이 사용한 척도를 김영길(2012), 박은영(2014)이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학교폭력 경험 유형은 신체적 폭력, 언어적 폭력, 집단따돌림, 괴롭힘, 강요 및 금품갈취로 나누어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해 경험을 위주로 하였으며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2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이론 및 문항의 수렴과 판별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신체적 폭력과 강요 및 금품갈취 문항을 합하여 ‘신체 및 물리적 폭력’으로 하였으며, 언어적 폭력 및 집단따돌림의 문항을 합산하여 ‘정서적 폭력’으로 구성하여 학교

폭력 가해경험을 2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였다. 이후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요인적재량을 수용할 수 있는 17문항이 수렴되었다.

<표 5> 학교폭력경험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분	B	β	S.E.	C.R.	Cronbach's α
신체 및 물리적 폭력경험	13	1.000	.750		
	14	.960	.783	.036	26.719***
	15	1.191	.747	.047	25.345***
	16	.867	.715	.036	24.096***
	17	.944	.777	.036	26.470***
	19	1.144	.814	.041	27.921***
	20	1.425	.678	.063	22.741***
	21	1.216	.764	.047	25.989***
	22	.945	.769	.036	26.176***
	23	1.304	.838	.045	28.868***
	24	.954	.744	.038	25.200***
정서적 폭력경험	1	1.000	.936		
	2	1.063	.961	.016	66.713***
	3	1.072	.962	.016	66.866***
	4	1.118	.921	.020	56.227***
	5	1.087	.946	.017	62.398***
	6	.789	.699	.027	29.6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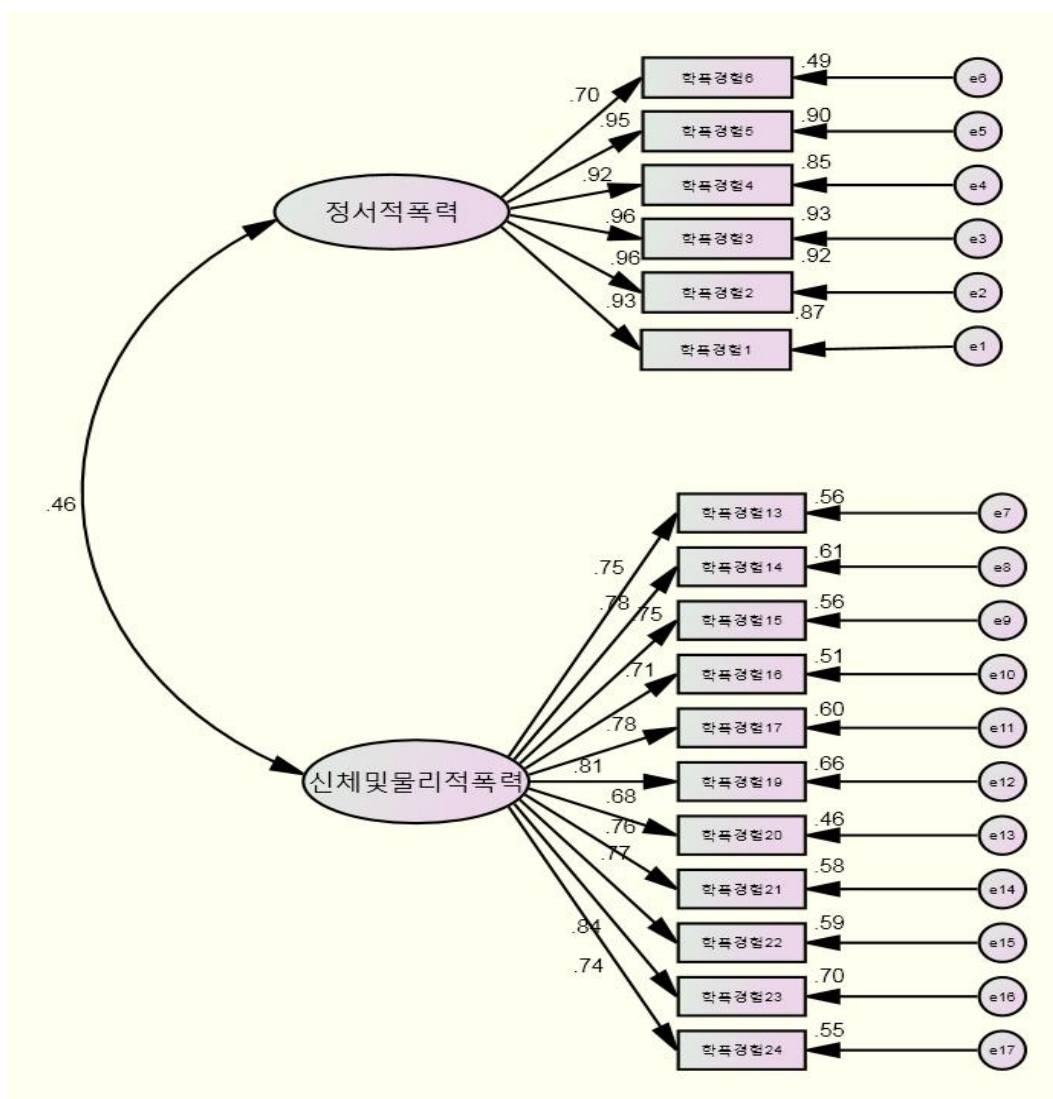
Chi-square=1864.149(df=118, p=.000), GFI=.814, TLI=.889, CFI=.904, RMSEA=.079

***p<.001

구체적으로 정서적 폭력은 6문항, 신체 및 물리적 폭력은 11문항이며 측정은 전혀 없음(0점), 2~3년에 한두번(1점), 일 년에 한두번(2점), 한달에 한두번(3점),

주 1회 이상(4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물리적 폭력경험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784로 나타났으며, 정서폭력경험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721로 나타났다.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678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C.R. > 2.0$)한 것으로 나타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아래 <표 5>와 [그림 4]는 학교폭력경험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그림 4] 학교폭력경험의 확인적 요인분석

3. 조절변수 : 젠더감수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젠더감수성 척도는 Chen & Starosta (2000)의 문화 간 감수성 이론과 김양희·정경아(1999)의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의 이론적 구조를 참고하여 이진영(2011)이 개발한 ‘젠더감수성’ 척도이다. 이진영(2011)이 개발한 젠더감수성 척도의 하위요인 중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 7문항(.835), 성역할에 대한 개방성 9문항(.745) 등 전체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젠더정체성은 성 정체성에 대한 개방성(Open-mindedness about Sexuality)을 말한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편견 없이 존중하며, 자신의 차이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는 내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꺼림칙할 것이다’, ‘나는 여성스러운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는 거부감이 든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젠더에 대한 개방성(open-mindedness to Gender Roles)은 개인의 성역할에 대한 다양한 차이를 편견 없이 존중하며, 자신의 차이도 솔직하게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열린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나는 내 아이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키우고 싶다’, ‘나는 나의 성별에 기대되는 모습(남자다움/여성스러움)과 일치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나는 페미니스트가 부담스럽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젠더감수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를 낮추지 않으면서 요인부하량이 수용 가능한 문항을 확인한 결과 정체성에서 6문항, 개방성에서는 6문항으로 나타났다. 젠더감수성의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었고, 점수가 높을수록 젠더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젠더정체성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852로 나타났으며, 젠더개방성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741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타당도에 있어서 젠더정체성에 대한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554 이상이었으나 젠더개방성에 대한 요인적재량이 .359 이상으로 다소 낮지만 통계적으로 유의(C.R.>2.0)한 것으로 나타나 수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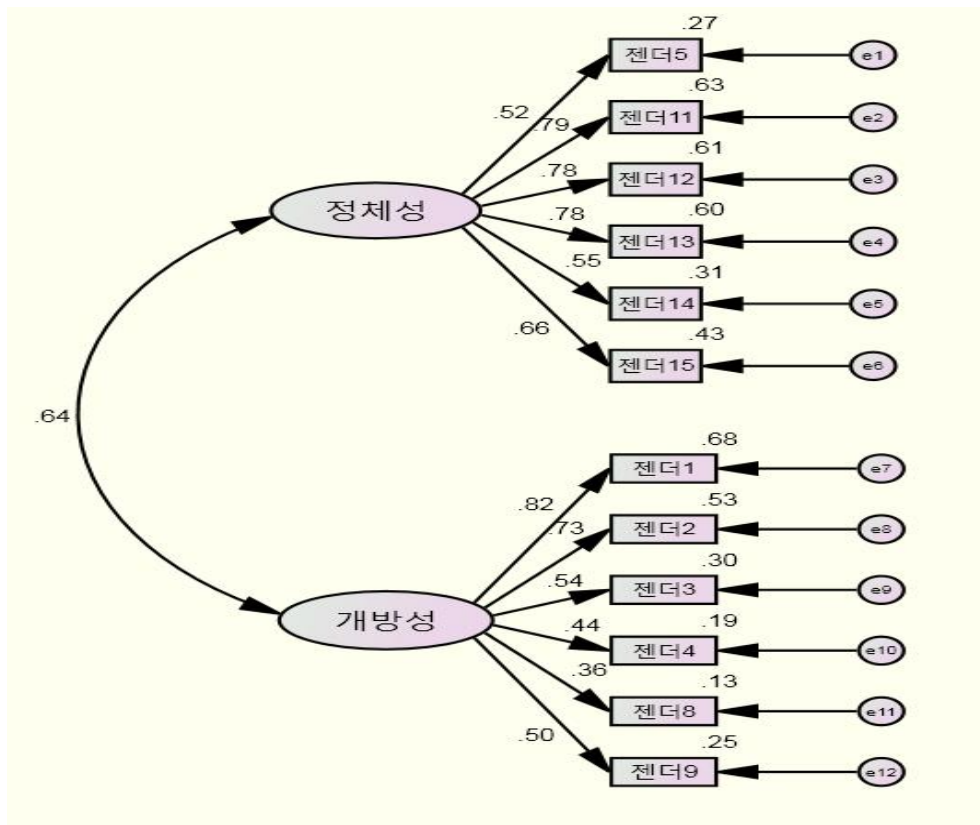
아래 <표 6>과 [그림 5] 는 젠더감수성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6> 젠더감수성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분		B	β	S.E.	C.R.	Cronbach's α
젠더정체성	5	1.000	.532			.852
	11	1.626	.794	.097	16.769***	
	12	1.618	.781	.097	16.646***	
	13	1.684	.776	.101	16.596***	
	14	1.064	.554	.078	13.731***	
	15	1.198	.656	.079	15.224***	
젠더개방성	1	1.000	.823			.741
	2	.738	.731	.033	22.563***	
	3	.621	.545	.037	16.840***	
	4	.497	.437	.037	13.362***	
	8	.485	.359	.044	10.916***	
	9	.558	.496	.558	15.529***	

Chi-square=509.431(df=53, p=.000), GFI=.893, TLI=.870, CFI=.896, RMSEA=.089

***p<.001



[그림 5] 젠더감수성의 확인적 요인분석

4. 종속변수 : 데이트폭력 가해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를 측정하기 위하여 Straus(1979)의 CTS (Conflict Tactic Scale)와 Shephard & Campbell(1992)의 ABI(Abusive Behavior Inventory)를 수정·보완하여 최지현(2005), 사공은희(2007), 김소영(2010), 이충환·신준섭(2015)이 사용한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성적 폭력의 세 가지 차원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적합도를 낮추거나 요인 부하량이 수용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5문항을 제외한 12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척도 구성은 성적폭력과 신체폭력을 하나의 범주로 한 신체 및 물리적 폭력과 언어 및 정서적 폭력을 포함하는 정서적 폭력의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데이트폭력가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각각 ‘전혀 없음’(0점), ‘2~3년에 한두번’(1점), ‘일 년에 한두번’(2점), ‘한달에 한두번’(3점), ‘주 1회 이상’(4점)의 범주로 이루어진 5점 Likert 척도를 이용하였다. 각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신체 및 물리적 폭력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761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폭력에 대한 총합의 Cronbach's α 계수는 .812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다.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592 이상이며 통계적으로 유의(C.R.>2.0)한 것으로 나타나 타당도가 확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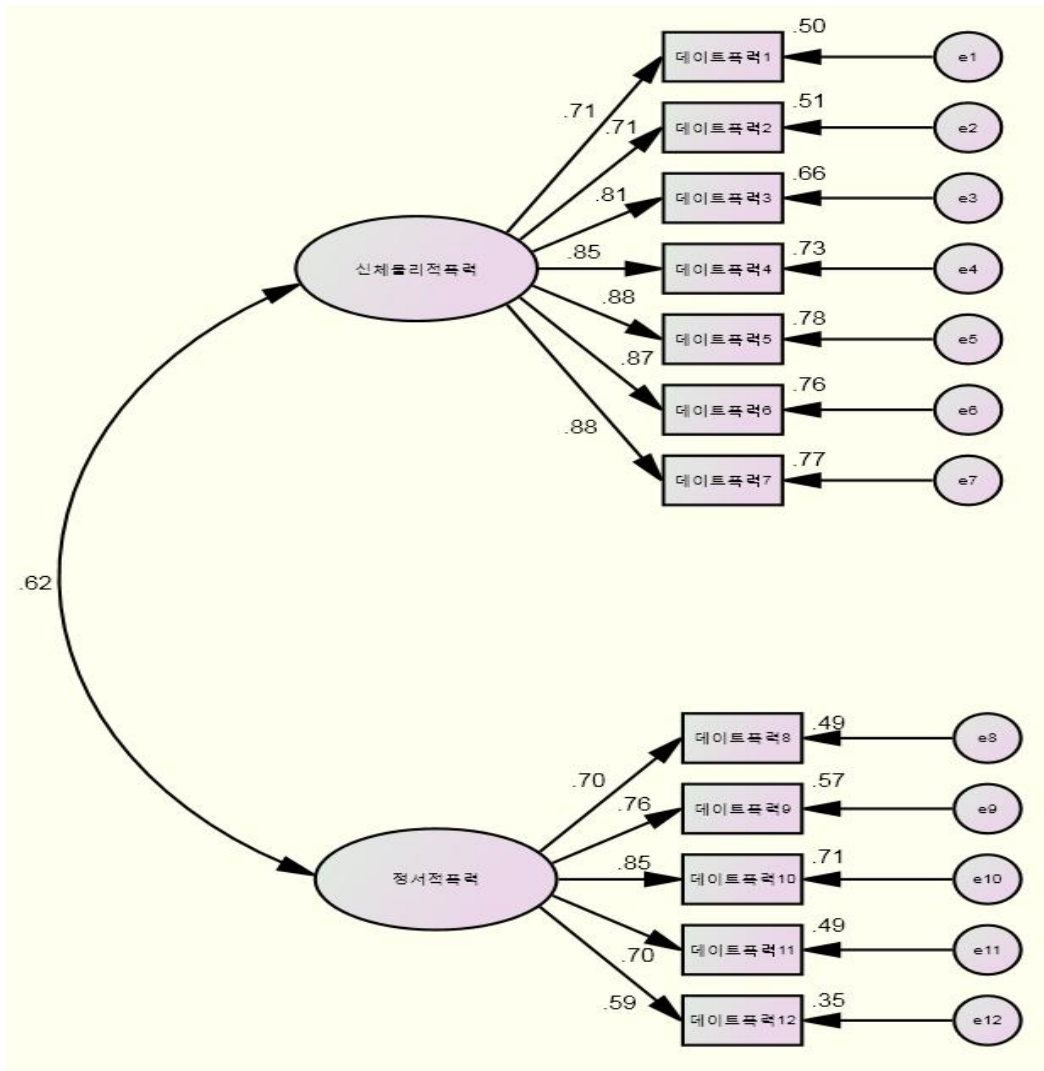
아래 <표 7>과 [그림 6]은 데이트폭력가해 척도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이다.

<표 7> 데이트폭력가해 변수의 타당도와 신뢰도

구분	B	β	S.E.	C.R.	Cronbach's α
신체물리적폭력	1	1.000	.708		.761
	2	.987	.713	.031	
	3	.872	.814	.034	
	4	.975	.852	.037	
	5	.891	.881	.033	
	6	.844	.872	.031	
	7	.829	.875	.031	
정서적폭력	8	1.000	.697		.812
	9	.937	.758	.041	
	10	.776	.845	.031	
	11	.886	.701	.042	
	12	.827	.592	.046	

Chi-square=501.209(df=48, p=.000), GFI=.927, TLI=.940, CFI=.956, RMSEA=.086

***p<.001



[그림 6] 데이트폭력가해의 확인적 요인분석

제4장 연구결과

제1절 주요변수의 특성

1. 주요변수의 정규성 및 기술통계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다수의 회귀모형을 동시에 검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찰되지 않는 잠재적 요인들의 인과관계까지도 검정할 수 있고 관측변수의 측정오차를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측정치들이 다변량 정상성을 따라야 하고, 잔차와 잠재변수 간의 상관은 0이어야 한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 사용할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다음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관측변수들의 다변량 정상성을 확인한 결과 왜도는 .13~3.20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01~9.37로 나타났다. 앞서 측정도구 설명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의 주요변수 중 가정폭력경험 및 데이트폭력가해에서 이상치를 보인 사례들을 데이트 탐색기법으로 미리 제거하여 주요변수의 정규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왜도 절대값 2 이하, 첨도 절대값 4 이하를 정규분포로 보고 이 범위를 벗어나면 χ^2 값에 영향을 주어 추정치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정민선, 2012;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그러나 학자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배병렬(2011)은 왜도가 2보다 크고 첨도가 7보다 큰 경우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문수백(2013)과 박영숙·이화연·권윤희(2011)는 왜도 절대값 3 이하, 첨도 절대값 10 이하를 정상분포 조건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산출은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 데이트폭력가해 문항의 응답범주는 ‘전혀 없다’ ‘0점’에서 최고 4점을 부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문항을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나 젠더감수성의 경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을 부여하여 전체문항을 평균한 점수임을 밝혀둔다.

<표 8> 주요변인의 기술통계치

		측정변인	Min	Max	M	SD	왜도	첨도
독립 변수	가정폭력 경험	가정폭력목격경험	.00	12	.82	1.72	2.36	7.48
		아동학대경험	.00	16	1.26	2.48	2.64	6.71
		전체	.00	25	2.09	3.72	2.45	6.58
매개 변수	학교폭력 경험	신체물리적폭력경험	.00	4.75	.97	.94	.64	.01
		정서적폭력경험	.00	5.00	.91	1.25	1.20	.73
		전체	.00	9.17	1.89	1.87	.98	.62
조절 변수	젠더감수 성	젠더정체성	1.00	5.00	2.66	.86	.13	-.31
		젠더개방성	1.00	5.00	2.72	.73	.36	.09
		전체	1.00	5.00	2.69	.72	.25	-.05
종속 변수	데이트폭 력가해	신체물리적폭력	.00	21.00	2.15	3.81	2.28	5.07
		정서적폭력	.00	14.00	1.58	1.94	3.20	9.37
		전체	.00	31.00	2.73	5.35	2.87	7.04

2. 상관관계 분석

구조측정변수들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성립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표 9>과 같이 이변량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에서 잠재변인 간 상관관계의 수가 .85를 상회하면 불안정한 값을 보일 수 있으나(문수백, 2013), 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001 \leq r \leq .556$ 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측정변수의 상관분석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		젠더감수성		데이트폭력가해	
	가정폭력목적	아동학대	신체물리	정서적	젠더정체성	젠더개방성	신체물리적	정서적
가정폭력목적경험	1							
아동학대경험	.556***	1						
신체물리적폭력경험	.114***	.171***	1					
정서적폭력경험	.151***	.188***	.449***	1				
젠더정체성	.082**	.068*	-.092**	-.001	1			
젠더개방성	.108***	.079*	-.068*	.069*	.554***	1		
신체물리적폭력	.103**	.151***	.266***	.253***	-.107***	.109***	1	
정서적폭력	.066*	.085**	.164***	.065*	-.069*	-.105**	.395***	1

*p<.05, **p<.01, ***p<.001

제2절 가설검증

본 연구에서 가설검증은 매개효과 연구모형과 조절효과 연구모형 등 두 개의 모형검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매개효과 연구모형은 연구가설 1, 2, 3, 4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지며, 조절효과 연구모형은 연구가설 5, 6, 7을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다.

1. 매개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매개모형은 가정폭력 목격경험 및 아동학대 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로 가는 경로에서 학교폭력경험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또한 매개모형을 통해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 및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학교폭력경험이 가정폭력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는 목적을 가진다.

1) 측정모형 검증

구조방정식모형으로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잠재변인에 대하여 관측변인이 이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모형을 먼저 분석하고 이후 이론적 구조모형을 분석한다. 매개효과 측정모형을 검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측정모형의 적합도 χ^2 값은 133.865,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절대적합도지수인 χ^2 , GFI(.990), RMSEA(.063)에서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충분적합지수인 TLI(.934)와 CFI(.974)에서도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측정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0>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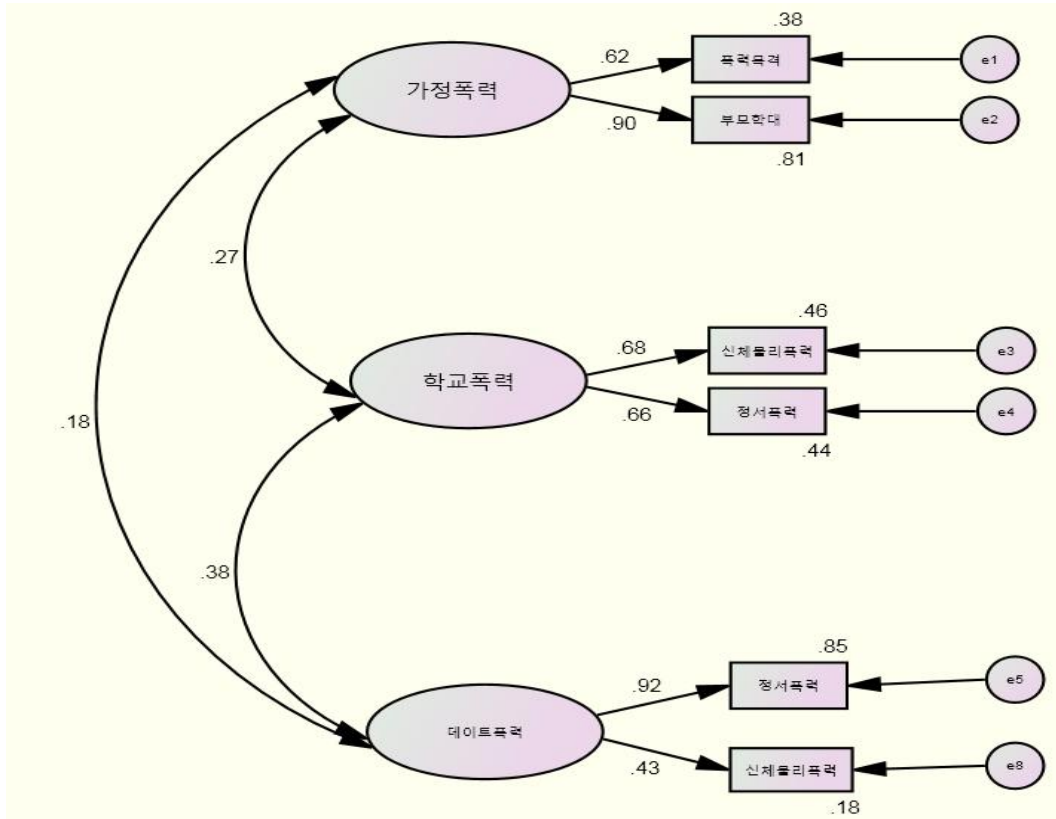
모형	$\chi^2(P)$	df	GFI	RMSEA		TLI	CFI
				LO	HI		
부분매개모형	31.059(.000)	6	.990	.063	.042	.934	.974
수용기준	p<.05		>.9	<.10		>.9	>.9

다음으로 <표 11>과 [그림 7] 을 통해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결과를 검증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각 잠재변인에 대한 측정변인의 표준화 회귀계수가 .428~.921로 나타나 각 측정변인들은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잠재변인 간 상관도 .183~.383으로 나타나 잠재변인 간 변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매개효과 검증에 위한 연구모형이 타당하게 측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매개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C.R.
가정폭력경험	→ 가정폭력 목격	1.000	.618		
가정폭력경험	→ 아동학대경험	2.096	.900	.362	5.784***
학교폭력경험	→ 신체물리적폭력	1.000	.676		
학교폭력경험	→ 정서적적폭력	1.430	.660	.172	8.322***
데이트폭력가해	→ 정서적폭력	1.000	.921		
데이트폭력가해	→ 신체물리적폭력	.246	.428	.051	4.828***

***p<.001



[그림 7] 매개모형의 측정모형

2) 연구모형 검증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를 학교폭력경험이 유의하게 매개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는 <표 12>와 같다.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χ^2 값은 31.059, 유의확률은 .000이었으며, 절대적합도지수인 χ^2 , GFI(.974), RMSEA(.063)에서 양호한 값을 보였으며, 증분적합지수인 TLI(.934)와 CFI(.974)에서도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적 연구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부합함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표 12> 부분매개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P)$	df	GFI	RMSEA		TLI	CFI
				LO	HI		
부분매개모형	31.059(.000)	6	.974	.063		.934	.974
				.042	.086		
수용기준	P<.05		>.9	<.10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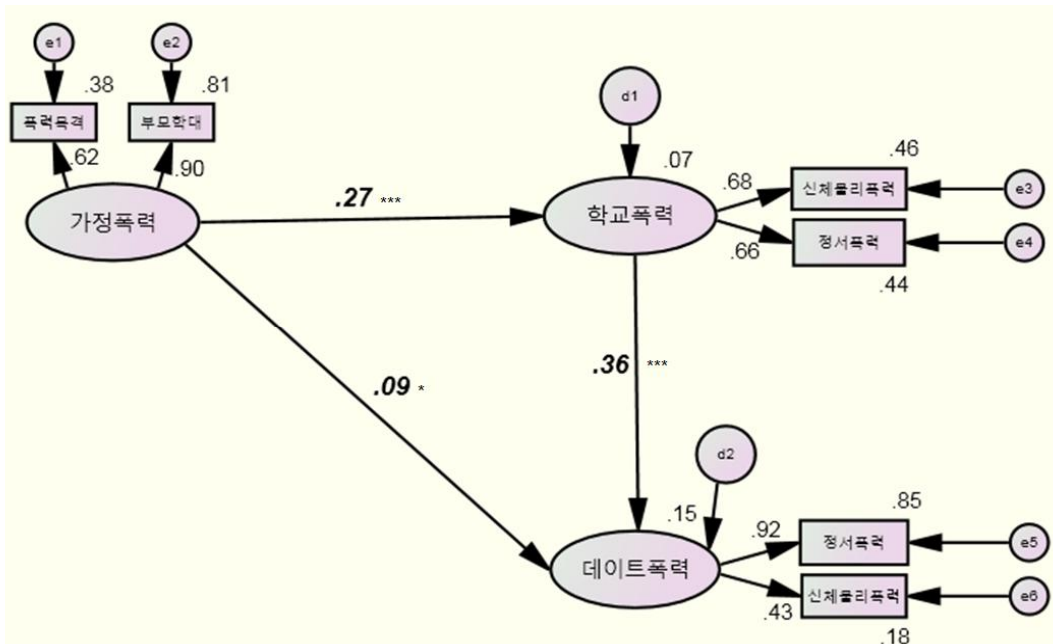
아래 <표 13>에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모수 추정치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잠재변인들 간의 경로를 보면,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C.R.=5.825$, $p<.001$) 및 데이트폭력가해($C.R.=2.237$, $p<.05$)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경험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C.R.=7.067$, $p<.001$). 이는 가정폭력 목격경험 및 학대경험이 많을수록 학교폭력경험 및 데이트폭력가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잠재변인들 간의 직접효과 분석결과는 [그림 8]에 제시하였다.

<표 13> 매개모형의 모수 추정치 및 통계적 유의성 검증

경로			B	β	S.E.	C.R.
학교폭력경험	←	가정폭력경험	.101	.273	.017	5.825***
데이트폭력가해	←	학교폭력경험	.033	.085	.015	2.237*
데이트폭력가해	←	가정폭력경험	.370	.359	.052	7.067***
가정폭력목격경험	←	가정폭력경험	1.000	.618		
아동학대경험	←	가정폭력경험	2.069	.900	.362	5.784***
신체물리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	1.000	.676		
정서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	1.430	.660	.172	8.322***
정서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1.000	.921		
신체물리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246	.428	.051	4.824***

* $p<.05$, *** $p<.001$



[그림 8] 학교폭력경험의 매개모형

이로써 본 연구의 가설1(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3)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경험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앞서 제시된 연구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해한 결과를 <표 14>에 제시하였다. 알려진 대로 AMOS에서는 직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크기와 유의성은 C.R.이나 p값을 통해 제공해주지만 간접효과와 총효과에 대한 유의성은 제공해주지 않는다. 따라서 표본자

료로부터 재표본추출(resampling)을 통해 하위표본(subsample)을 생성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특히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은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난 데이터 분석에도 유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우종필, 2012). 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경험의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래핑을 사용하여 1000개의 샘플로 95% 신뢰구간의 CI값을 제시하였다.

<표 14> 매개모형의 직·간접효과 분해

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B(β)	B(β)	B(β)
가정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	.101(.273)***	.101(.273)***	
학교폭력경험 → 데이트폭력가해	.370(.359)***	.370(.359)***	
가정폭력경험 → 데이트폭력가해	.070(.183)**	.033(.085)*	.037(.098)* BootCI(.013 to .060)

*p<.05, **p<.01, ***p<.001

표 19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동시에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효과크기를 보면 가정폭력경험의 데이트폭력가해에 이르는 직접효과($\beta=.085$)에 비해 간접효과의 크기($\beta=.098$)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목적 및 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로 바로 가는 경로보다 학교폭력경험을 통해 갈 때 데이트폭력 가해가 더욱 많아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이로써 가설4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경험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지지되었다.

2. 조절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조절효과 검증은 독립변수를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으로 하여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인 데이트폭력가해로 이어지는 경로에서 젠더감수성이 완화적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조절모형은 측정모형을 검증한 후 선정된 자료들이 조절모형을 예측하기에 적절한가를 시작으로 이루어진다. 이후 조절모형에서 젠더감수성이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과 상호작용하여 데이트폭력을 완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로에서는 조절변수를 평균과 $\pm 1SD$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산출하여 기울기의 유의성을 검토하여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1)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은 독립변수인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 조절변수인 젠더감수성 그리고 상호작용변수인 가정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곱과 학교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곱이 데이트폭력가해에서 유의성을 보이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때 상호작용항은 표준화시킨 값으로 이루어졌다.

<표 15>와 같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인 가정폭력경험, 학교폭력경험, 젠더감수성, 데이트폭력가해를 잘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GFI, RMSEA, TLI, CFI 모두에서 수용기준에 부합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절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선정된 변수들이 수집된 자료들과 잘 부합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5>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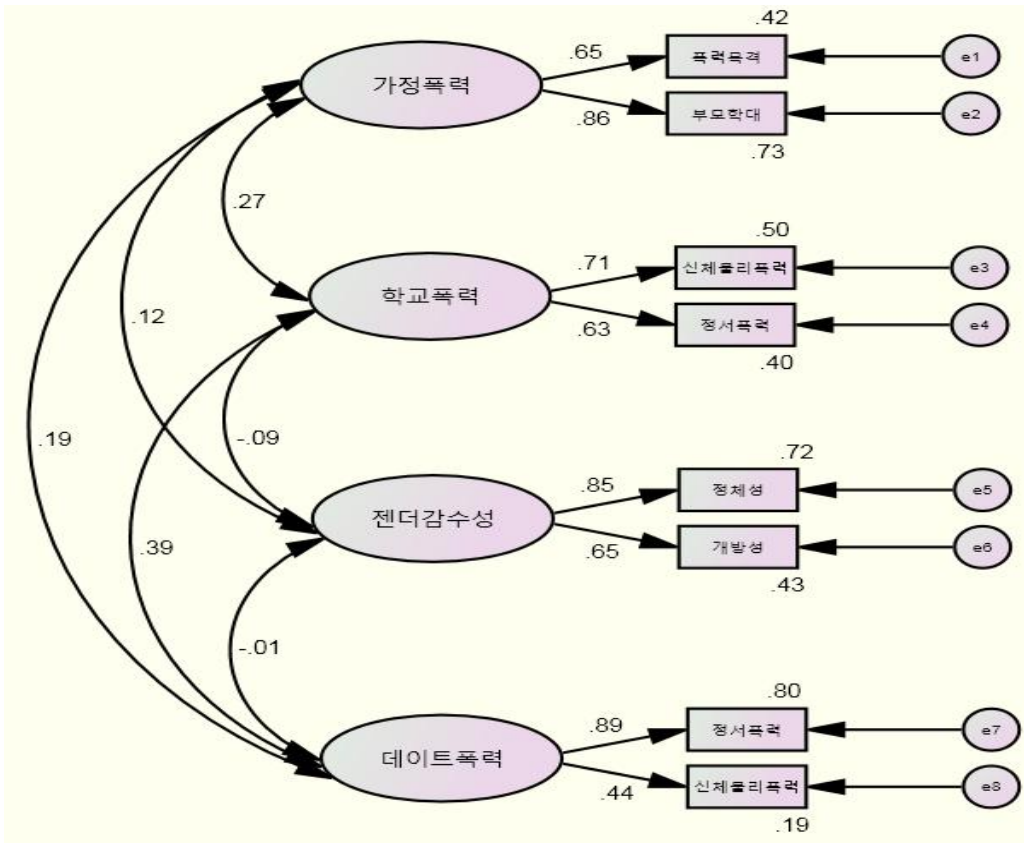
모형	$\chi^2(P)$	df	GFI	RMSEA		TLI	CFI
				LO	HI		
측정모형	56.967(.000)	14	.986	.054		.937	.969
				.040	.069		
수용기준	p<.05		>.9	<.10		>.9	>.9

아래 <표 16>과 [그림 9]는 조절효과 측정모형에서 얻은 모수 추정치를 제시한 것이다.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모든 측정변수들이 잠재변수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가 -.093~.393으로 나타나 판별타당도가 확보되어 상호독립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조절모형을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6>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모수 추정치

잠재변수	관측변수	B	β	S.E.	C.R.
가정폭력목격경험	← 가정폭력경험	1.000	.651		
아동학대경험	← 가정폭력경험	1.891	.855	.280	6.750***
신체물리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	1.000	.707		
정서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	1.310	.632	.155	8.440***
젠더정체성	← 젠더감수성	1.000	.846		
젠더개방성	← 젠더감수성	.656	.654	.188	3.495***
정서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1.000	.894		
신체물리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262	.441	.051	5.121***

***p<.001



[그림 9] 조절효과 측정모형 분석

2) 조절효과 연구모형 검증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표 17>에서와 같이 TLI .956 절대적합도지수인 GFI .961, RMSEA .040으로 높은 적합도를 보였으며, 증분적합도지수인 CFI 에서도 .972로 높은 적합도를 보여 연구모형이 자료와 잘 부합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17> 조절효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형	$\chi^2(P)$	df	GFI	RMSEA		TLI	CFI
				LO	HI		
측정모형	207.212(.000)	77	.961	.040		.956	.972
				.034	.047		
수용기준	p<.05		>.9	<.10		>.9	>.9

아래 <표 18>은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조절효과 모형의 경로계수를 제시한 것이다. 검증결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R.=2.152, $p<.05$), 상호작용 항 중에서는 학교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 항이 데이트 폭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R.=2.152, $p<.05$ /BootCI .014 to .064)). 그러나 젠더감수성은 조절모형에서 데이트폭력가해에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유의수준 .10에서는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젠더감수성이 독립적으로는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과 상호작용할 경우에는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상호작용항의 관측변인을 보면 아동학대경험과 젠더정체성,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젠더 정체성 및 개방성이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서적 학교폭력경험과 젠더정체성, 신체물리적 학교폭력경험과 젠더 정체성 및 개방성의 상호작용항이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결과로는 가정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은 데이트폭력가해에 부적인 관계로 나타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정적관계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유의수준 .05에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아 단정적 해석이 어렵지만 영가설 기각영역을 .10으로 한다면 젠더감수성이 높을 경우 가정폭력경험으로 인한 데이트폭력가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가정폭력경험이

높은 대상에게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킨다면 데이트폭력의 가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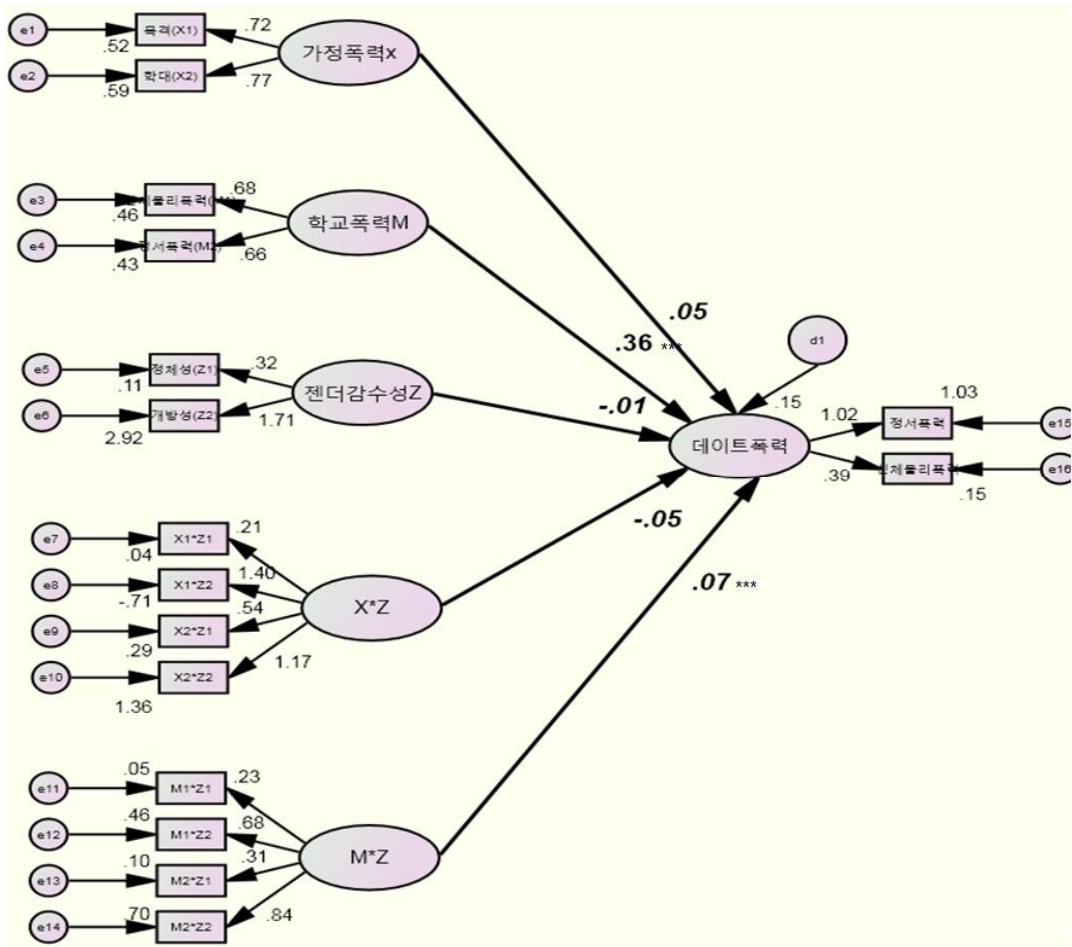
<표 18> 조절효과 연구모형의 경로계수와 유의성

경로		B	β	S.E.	C.R.
데이트폭력가해	← 가정폭력경험(X)	.012	.053	.009	1.364
데이트폭력가해	← 학교폭력경험(M)	.198	.360	.025	7.752***
데이트폭력가해	← 젠더감수성(Z)	-.003	-.008	.006	-.446
데이트폭력가해	← X×Z	-.016	-.046	.009	-1.855
데이트폭력가해	← M×Z	.031	.075	.014	2.152*
아동학대경험	← 가정폭력경험(X)	1.000	.770		
가정폭력목격경험	← 가정폭력경험(X)	.650	.721	.070	9.276***
정서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M)	1.000	.656		
신체물리적폭력경험	← 학교폭력경험(M)	.780	.677	.082	9.462***
젠더개방성	← 젠더감수성(Z)	1.000	1.708		
젠더정체성	← 젠더감수성(Z)	.224	.324	.174	1.286
학대경험과개방성	X×Z	1.000	1.166		
학대경험과정체성	X×Z	.411	.541	.040	10.190***
가폭목격경험과개방성	X×Z	1.212	1.396	.103	11.762***
가폭목격경험과정체성	X×Z	.160	.205	.026	6.162***
학폭정서와개방성	M×Z	1.000	.839		
학폭정서와정체성	M×Z	.271	.310	.033	8.309***
학폭신체와개방성	M×Z	.699	.675	.062	11.220***
학폭정서와정체성	M×Z	.195	.229	.034	5.789***
정서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1.000	1.016		
신체물리적폭력	← 데이트폭력가해	.202	.388	.046	4.356***

*p<.05, ***p<.001***

결과적으로 젠더감수성은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경로에서 완화적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7(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은 지지되었다. 그러나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5(젠더감수성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유의수준 .05에서는 유의성을 보이지 못해 가설6(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하였지만 젠더감수성이 가정폭력경험의 하위변수 내에서와 유의수준을 10%로 기준할 경우에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이에 대한 해석에도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가해를 독립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가정폭력 목격경험 및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대상,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데이트폭력 가해행위를 완화 혹은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그림 10] 조절효과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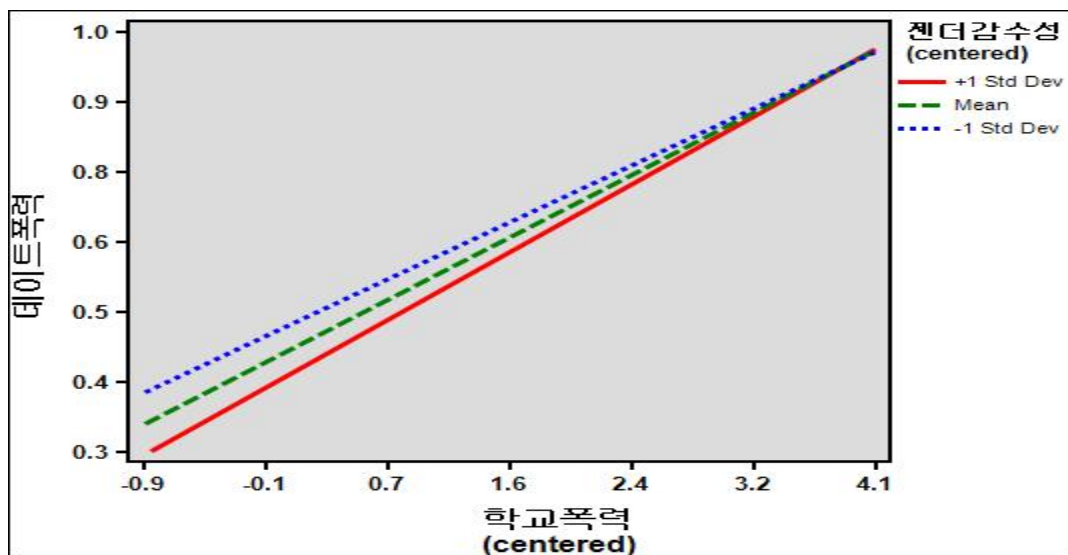
이상의 결과에서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젠더감수성이 어느 수준일 때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teraction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젠더감수성을 평균 및 $\pm 1SD$ 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회귀식을 산출하여 단순기울기의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하였다. 우선 표 18에서 보면 젠더감수성의 평균 및 $\pm 1SD$ 세 집단의 회귀식 모두에서 단순기울기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세 집단의 회귀식을 보면 1SD 집단의 회귀계수 값이 .151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평균집단

.139, -1SD 집단 .127로 나타나 젠더감수성이 높을수록 조절효과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19> 젠더감수성의 단순기울기 검증

		젠더감수성의 단순기울기				
		β	S.E.	t	LLCI	ULCI
학교폭력× 젠더감수성	1 SD	.151	.031	4.853***	.090	.213
	평균	.139	.020	6.760***	.098	.179
	-1 SD	.127	.028	4.513***	.071	.182

***p<.001



[그림 11]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그래프

위에서 제시한 <표 19>와 [그림 11] 을 보면 학교폭력경험이 많을수록 사이버폭력가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젠더감수성이 조절되어도 여전히 이 방향에는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학교폭력경험에 젠더감수성이 투입되어도

학교폭력경험이 높아짐에 따라 데이트폭력가해 역시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만 젠더감수성이 평균보다 1SD 높은 집단이 평균집단과 -1SD집단에 비해 그리고 평균집단이 -1SD집단에 비해 학교폭력경험이 높아도 데이트폭력가해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젠더감수성이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를 완화적으로 조절하지만 젠더감수성이 높을 경우에 완화시키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한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서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 <표 20>과 같다.

<표 20> 연구가설 검증 결과

가설	채택 여부
가설1.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2.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3.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은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4.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폭력경험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가설5. 젠더감수성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6.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가설7. 대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제5장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오늘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한 사회문제의식에 기반하여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른 논의 및 결론과 제언을 연구가설 검증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절 논의

1. 매개효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다변량 정규성을 벗어난 데이터 분석에도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트스트랩 방법을 이용하여 매개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소영, 2010; 사공은희, 2007;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부모와 관련된 경험에는 정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모방학습이 더 잘 이루어진다는 Bandura(1977)의 사회학습이론을 설명하는 결과이다. 데이트폭력을 가해한 응답자의 35%는 부모의 폭력을 목격하였고 53.7%는 아동학대의 피해자였다는 Rada(2014)의 연구와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아동학대경험과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영향을 밝힌 연구(정혜정, 2003; 조춘범·이현, 2013; 최지현, 2005; 현정혜, 2006)에서와 같이 폭력이 세대 간에 전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있을 경우 이를 학습하게 되어 성인이 되더라도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면 폭력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장기 아동에게 가정폭력경험은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가해를 예측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재엽·이순호, 2011; 임희복, 2002)와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배준우, 2010; 이승출, 2012; 이정애,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사회학습이론에서 청소년이 아동기에 경험한 가정폭력을 모델링하여 학교생활에서의 갈등상황을 폭력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의 세대 간 전이를 설명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자녀들이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폭력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경험은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학교폭력행위를 습득한 이후 또 다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김난주, 2013)과 학교폭력 가해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Spencer & Bryant, 2000)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은 청소년의 발달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후의 데이트폭력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넷째,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와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간접적인 경로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모형의 검증에서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에 이르는 직접경로와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이르는 직접경로,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이르는 간접경로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는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직접적인 영향력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련성이 있다는 연구

(신혜섭, 2006))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가해 예측요인에 대한 연구(강희순·이은숙, 2014)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학교폭력경험을 많이 할수록 데이트폭력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데이트폭력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의 경험을 줄이거나 예방하기 위한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정폭력경험에 대한 선행적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하여 예방적 차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조절효과에 대한 논의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조절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조절효과 모형의 경로계수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연구(신혜섭, 2006; 홍창숙, 2008)를 지지하는 결과이며,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의 신체적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사공은희, 2007)와 같은 맥락이다. 앞서 매개모형 검증결과에서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와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검증된바 있다. 조절효과모형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 및 젠더감수성과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검증한 결과로 보아진다. 또한 가정폭력경험($C.R.=1.364$)보다는 학교폭력경험($C.R.=7.752$)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폭력경험을 줄이거나 예방함으로써 이후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둘째,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을 통해 폭력적인 관계의 해방이 가능하다는 조옥라(2003), 홍미리(2005)의 주장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구조적 가부장제와 도구적 통제의 관계에서 가부장적 성역할을 매개로 청소년의 비행에 차이가 있음을 밝힌 연구(Hagan et. al., 2004)와도 다른 맥락이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조건이 없이 젠더감수성의 확장만으로는 데이트폭력가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적 상황조건 즉 가정폭력경험이나 학교폭력경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 가해행위를 완화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가정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경로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젠더감수성이 가정폭력경험의 하위변수 내에서와 유의수준을 .10으로 기준할 경우에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를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항의 관측변인을 보면 아동학대경험과 젠더정체성, 가정폭력 목격경험과 젠더 정체성 및 개방성이 데이트폭력가해를 유의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목격경험과 아동학대경험에서 각각 젠더정체성과 젠더개방성이 데이트폭력을 조절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가정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이 유의수준 .10 범위에서 데이트폭력가해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젠더감수성을 향상시킨다면 데이트폭력가해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젠더정체성에 대한 인식교육이 필요하며, 가정폭력목격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젠더정체성 및 젠더개방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경험과 젠더감수성의 상호작용항이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경로에서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는 젠더감수성이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완화적 조절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젠더에 기반한 성장변화에 따른 비행의 성별차이를 분석한 유영현·김지연(2009)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즉 학교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젠더감수성을 확장해 줌으로써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경로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데이트 관계에서의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젠더감수성의 확장

이 필요하다는 홍미리(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젠더감수성은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의 데이트폭력에 저항할 힘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특히 여성과 남성 간에 사회적으로 고정된 성별 차이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종류의 물리적, 성적, 언어적 폭력을 젠더기반폭력(Majoo · Rashida, 2011)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의 관계에서도 젠더감수성이 이들을 조절하는 기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젠더감수성 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이후 데이트폭력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과 학교 및 직장에서 아동,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젠더감수성 훈련이 이루어진다면, 데이트폭력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 크기에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데이트폭력가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할 때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와 학교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절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데이트폭력가해에 대한 사회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설계되었다.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상당수가 아동기 폭력을 경험하였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성장하면서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데이트 관계에서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로 가는 연결적인 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매개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을 독립변수로 하여 이들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절효과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1,400명을 유의 할당표집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이성교제를 경험한 1,136부 중에서도 극단 값을 보인 84명의 사례를 제외한 1,052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한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폭력경험은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행동수정이나 처벌 또는 갈등상황에서 신체적으로 공격해도 무방하다는 폭력적 경험을 아동기에 학습한 결과에 기인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자들(김소영, 2010; 이병도, 2011; 장희숙, 2002; 최지현, 2005)의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되었다.

둘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간 폭력과 아동학대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이승출, 2012; 임신일 · 이정미, 2013)와 부모의 폭력적 양육환경이 자녀의 폭력적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이 된다는 연구(김준호 · 노성호 · 고경김 · 최원기, 1990)들과 같이 폭력이 세대 간에 전이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셋째, 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은 데이트폭력가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 의해 설명되고 있는 청소년의 폭력은 또래관계에서 경험한 폭력적 행위를 관찰 모방함으로써 폭력에 대한 통제력이 감퇴되어 죄의식 없이 새로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형제, 자매, 친구, 학우들과의 폭력가해 경험이 데이트폭력과 관계가 있다는 연구(O'Keefe, 1997; Spencer & Bryant, 2000)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특히 청소년에게 있어 폭력예방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넷째,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은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가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은 부모의 폭력행동을 모방하거나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며, 학교환경에서도

학습된 폭력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한 결과이다. 더욱이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에 더해지는 학교폭력경험은 인간관계에서의 문제해결 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증가하여 향후 데이트폭력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대학생의 학교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와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은 조절효과를 가진다. 이는 페미니즘이론에 근거하여 성별권력관계에 의한 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학교폭력경험이 높을지라도 젠더감수성을 확장해 줌으로서 데이트폭력가해행위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과, 청소년기에 경험한 학교폭력경험으로 인하여 데이트폭력가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관계에서 기인하는 젠더기반폭력 중의 하나인 데이트폭력은 아동기 가정폭력경험과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별 권력관계를 재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폭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학생들에게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는 것은 심각해지는 데이트폭력을 감소시키고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보호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동기에 경험하게 되는 가정폭력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고, 이들 간의 영향력이 클수록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어린 시절부터 폭력의 목격자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유아기, 아동기 때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초등학교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을,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부터 비폭력교육에 대한 조기교육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비부부교실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과, 자녀를 출산한 부모에게 출산 후 교육 형태로 자녀양육방법 및 비폭력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면 폭력에 대한 노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폭력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의 발생가능성을 미연에 예방함으로써 이후 데이트폭력의 발생도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가해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으로 이어지는 경로와 데이트폭력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를 확인하였다. 가정폭력경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처리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와 가해자에 대한 올바른 사법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조건 없는 보호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먼저 가정폭력 피해여성과 자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해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로부터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보호시설에서는 거주지 노출 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할 수 없어 거주불명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고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해자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가해자의 면접교섭권을 없애고, 피해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부부상담 처분 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올바른 사법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중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처벌을 강화하여 재범을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당방위 구성요건 완화, 수사기관의 성폭력에 대한 통념 완화 등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과 회복적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데이트폭력으로 가는 영향력보다는 학교폭력경험을 거쳤을 때의 영향력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모나 가족에 의해 타의적으로 일어나는 가정폭력경험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학교폭력경험 시 적절한 대처와 회복적인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학습된 폭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은 특히 가정이나 학교에서 폭력적 훈육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을

학습(홍봉선, 2012)하게 되어 이후에도 문제 상황이나 갈등상황이 발생할 경우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하여 옹보적 관점의 사법적인 모델로 접근하기보다는, 대화 지향적이고 직접적이며 자발성을 강조하는 회복적 조정모델로 접근한다면 다이버전 효과를 증가시켜서 사회통합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예방적 교육과 함께 사후 개입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청소년 스스로 옹보적 태도를 지양하고, 회복적 조정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젠더감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강화와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젠더는 출생 이후부터 시작되는 사회화의 결과로 획득된 성역할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 부모로부터 학습되고 있는 젠더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기대치가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별 역할을 습득하게 됨으로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인식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최근에는 창의적인 사고와 성에 대해 개방적인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교와 사회복지기관 등을 중심으로 양성평등교육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배정된 예산이 부족한데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달되는 교육이 대부분이라 그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나 스마트기기를 활용하여 젠더감수성에 대한 대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Lips(2008)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성인 모두 TV를 더 많이 시청할수록 성 고정관념이 더 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TV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묘사는 양적, 질적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을 전통적인 모습으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는 성별 불평등한 내용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양성 평등한 내용으로 제작·방영하여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해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대중매체를 통한 성불평등에 대해 법적 제한이 필요하며, 젠더감수성 인식의 확산을 위한 교육에 대해서도 예산을 늘려 나가도록 제도적 장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래나 웹툰 제작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스마트기기를 통해 젠더감수성을 확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젠더감수성훈련을 통하여 비폭력적인 가족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수준 .10에서는 가정폭력경험과 데이트폭력가해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이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젠더감수성을 확장하는 것은 데이트폭력의 예방과 감소에 기여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에게 있어 젠더는 서로를 특정 짓는 요소가 아닌, 함께 존중하며 살아가는 파트너이므로 이를 인식하고 소통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 젠더에 대하여 개방적인 감수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

최근 대중매체를 통해 성역할에 대하여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아동과 개방적인 아동, 중성적인 아동 세 그룹으로 나누어 “어떻게 영재가 되는가?”라는 실험²⁾을 진행한 결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을수록 민감성과 개방성, 독창성이 향상되어 관계 지향적이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양성평등한 인식은 자녀를 영재로 키우는 한 방법이며 이를 통해 양성평등한 가족문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가족은 아동의 양육과 사회화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부모는 자녀의 사회화를 담당하는 일차적인 책임자이다. 크게 부모의 반응과 부모의 기대, 부모의 태도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성역할 사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유아기는 발달과정에서 부모의 성역할 고정관념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시기로서 성인의 모델에 의해 젠더 개념을 이분법적으로 습득하기 쉬우며, 이후 청년기는 젠더의식에서 남녀 간 격차가 발생하는 시기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 생애적인 관점에서 젠더감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과 지원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다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가족문화 중심으로 우선 보급한다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로 젠더감수성이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우선적으로 젠더감수성 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적극적이고 실천 가능한 부모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젠더감수성을 확장하기 위한 학교에서의 의무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http://www.sbs.co.kr>; SBS 스페셜 2016. 01. 31일자

본 연구결과에서 학교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며,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을 볼 때, 학교에서의 젠더감수성에 대한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 학교교사의 젠더에 관한 인식과 태도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일과 중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젠더감수성은 학생들의 젠더감수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아동기는 가정과 학교 간 이중적 성역할을 체험하는 시기이면서 동시에 전통적인 젠더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만큼 교육 및 양육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와 교사의 태도가 가장 큰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에 대한 젠더감수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과정에 젠더감수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의무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있어서 젠더감수성교육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교육의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과 학교에서 젠더감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된다면 데이트폭력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을 예방 및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젠더감수성 확장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폭력 대응 매뉴얼의 제작 및 보급이 필요하다. 특히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개선과 젠더감수성 확장을 위하여 경찰 및 검사, 판사 등 법조인에 대한 성평등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여러 가정폭력 사건과 학교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사건 등에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초기대응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왔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대응에는 반드시 차별적이고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정폭력과 데이트폭력사건 발생 시 개인 및 가정적인 문제로 치부되어 적극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제 2의 폭력으로 작용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조인에 대한 인권감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전반적인 젠더감수성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폭력사고 발생 시 인권보호를 위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젠더감수성 교육프로그램에는 성평등 교육을 포함한 인권감수성과 폭력 예방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이 포함되도록 짜여 져야 할 것이다. 폭력 대응 매뉴

얼은 사법적인 관점이 아닌 회복조정과 사회복지적인 관점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 배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경험을 거쳐 데이트폭력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연결성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궁극적으로 젠더감수성을 확장함으로써 데이트폭력을 예방 및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특히 젠더기반폭력이라 할 수 있는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과 데이트폭력의 관계에서 젠더감수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독창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주로 상관관계분석, t검증, F검증, 회귀분석의 방법으로 상관관계수 확인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표집대상을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증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젠더감수성이 데이트폭력가해에 미치는 조절효과 영향력만을 파악하였기에 이후에는 보다 다양한 변인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 개발된 젠더감수성의 개념에 대한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의 표준화가 미흡하여 추후에는 젠더감수성에 대한 재개념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데이트폭력가해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과,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데이트폭력의 경로에서 연장하여 결혼 후 가정폭력으로 재순환하는 경로에 대한 종단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여성에게 가하는 남성의 폭력이 역사적·문화적으로 지속되어 온 남성지배 체계의 산물로 보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경쟁적인 관계에서 소외되고 권력에서 배제된 남성일수록 남성다움을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폭력은 결국 힘없는 자아와 사회에 대한 절망감이나 증오, 분노의 폭발로서 폭력을 통해서도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고급 인공지능의 등장과 함께 정보화와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역할과 지위를 구분하는 것은 시대적 방향을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본다. 특히 힘이 없는 남성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남녀 간의 갈등을 여성혐오라 부르는 사회적 현상 속에서 성별 권력관계를 벗어나서 개별적인 인간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젠더 권력관계에 의한 테이트폭력을 가정이나 학교에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고, 가정에서부터 학교, 지역사회 전체로 젠더 감수성을 확장하여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가. 한국어 자료

- 강선미(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강효진·박기환(2013). “데이트 폭력피해의 위험요인 및 관계지속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9(3) 27~54.
- 경찰청(2016). “데이트폭력 범죄자 현황”
- 권문자(2014). “청소년의 사이버불링과 우울 및 자살사고와의 관계: 부모 양육태도와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서울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김정란(1998). “대학생의 이성교제 중 폭력행동과 관련 변인”, 『생활과학연구』, 8.
- 김경희(2004), “성인지 예산”, 『성인지정책리포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45-59쪽.
- 김규학(2013). “청소년의 학교폭력비행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난주(201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기·사공은희(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 김민지(201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소영(2010).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율(2006). “가족폭력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아내폭력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연구

보고서, 1-62.

김양희 · 정경아(1999),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 · 허나운 · 조영주 · 김미선(2005), 『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지원사업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김예정 · 김득성(1999). “대학생들의 데이팅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가해자를 중심으로”,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7(10).

김옥수(2005). “가정폭력 경험과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김용미(1996). 미혼 대학생의 혼전 단계에서의 신체적 폭력의 경험에 관한 실태 조사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1), 187-197.

김용미 · 김현옥(2000), “고교생의 이성교제 중 신체적, 심리적 폭력사용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12(3).

김윤희(2006), 『가정폭력범죄 - 그 이론과 실제 그리고 사례』, 백산출판사.

김은실(2006), “한국 페미니즘 성연구의 현황과 전망”, 변혜정 엮음, 『섹슈얼리티강의, 두번째』, 동녘.

김은실(2008a), “젠더, 섹스, 섹슈얼리티”, 한국여성민우회 엮음, 『여성주의 학교 ‘간다’: 페미니즘, 경계에서 세상을 말하다』, 지성사.

김은실(2008b), “한국의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전략”, 「국제사회의 성 주류화 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131-149쪽.

김은영(2008). “학교분위기가 중학생의 등교공포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0(3): 151-176.

김은영(2014). “남자 비행청소년들의 성적, 신체적 학대경험과 폭력비행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연구』, 13(2) 29~54.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87-114.

김재엽 · 이순호(2011). “청소년의 부모간 폭력 목격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군산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26.

- 김정옥·박경규. 2002. “청소년의 가정폭력 경험과 학교폭력과의 관계 연구 -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1): 93-115.
- 김준호·김선애(2000). “학교주변 폭력에 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31.
- 김준호·노성호·고경임·최원기(1990), 청소년비행의 원인에 관한 연구: 공부압력을 중심으로, 청소년범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남현미(2003), “대학생 데이트 성폭력 실태와 가해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문지혜(2015). “대학생이 지각한 성장기 폭력 경험과 폭력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의 관계”, 전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은영(2014). “초기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에 대한 생태학적 변인의 영향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황(2009), “가정폭력범죄의 실태 및 그 대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하나·장수미(2012). “대학생의 데이트폭력 피해 영향요인: 피해여학생과 가해남성의 음주문제를 중심으로”, 『미래사회복지연구』, 3(1).
- 박현정(2015). “데이트폭력의 위험요소와 대책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22(2), 499-521.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모델링 원리와 실제』, 도서출판 청람.
- 배준우(2010).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경상북도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벤델, 사스키아(2008), 『여성주의 윤리학 입문』, 송안정 옮김,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사공은희(2007).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경현(2002). 청소년들의 데이트폭력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학습적 변인들과 분노의 역할, 『한국심리학회지』, 8(2), 1-15.
- 서경현(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

- 심리학회지; 건강』. 제14권 제4호, 한국건강심리학회,
- 서경현(2011).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경험에 대한 국가 간 비교 연구: 한국, 몽골, 필리핀, 러시아 대학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8(5).
- 서경현 · 이영자(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평력에 대한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7(2), 91-106.
- 서혜경(2014). “부산경남지역 대학생 데이트성폭력 실태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혜진 · 전귀연(2003), “미혼 남녀의 개인적, 관계적, 상황적 변인이 데이팅 폭력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2호.
- 송인자(2009), “양성평등과 성인지 관점”, 마경희 · 송인자 · 김효선, 『성인지 예산제도 추진역량 진단 및 교육안 개발: 부록: 성인지 예산 강의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송인자 · 강남식 · 송현주 · 한정원(2006),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여성가족부.
- 신경아(2004), “성 인지적 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 性認知的 觀點)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정책리포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29-44
- 신혜섭(2006). 데이트폭력과 가정폭력, 학교폭력 경험과의 관련성 :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학생생활연구, 25.
- 신혜섭 · 양혜원(2005). “청소년의 성폭력 실태와 예측요인”, 『한국가족복지학』, 15.
- 안귀여루(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9, 55-75.
- 안귀여루(2006).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위험 요인들에 대한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1(4).
- 안상수 · 김이선 · 박군석 · 이상화 · 김정인(2009), 『성인지력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양민석(2007), “한국 시민사회와 시티즌십의 성정치”, 조형 외, 『여성주의 시티즌십의 모색』,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혜원 · 전명익(2001), “아내폭력 노출이 자녀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 사회복지연구, 제 6·7권 통합본.
- 양혜원(2002), 아내구타 노출아동을 위한 통합적 집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에 미치는 영향.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여성가족부(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13.
- 여성가족부(2013). 「2013 여성·아동권인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
- 오세연 · 곽영길(2011).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제13권 제5호, 한국경찰학회.
- 우종필(2012). 『구조방정식모델 개념과 이해』, 한나래출판사.
- 유선영(2000). “여대생의 가정폭력 피해와 데이트폭력 피해 간의 매개요인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허용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유영현 · 김지연(2009). “권력통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 비행의 성별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6(4).
- 윤가현(2002). 『문화속의 성』, 학민사.
- 윤순자(1999), “구타당하는 아내들의 실태와 의식에 관한 연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진 · 양승연 · 박병금(2012). “가정폭력경험, 가부장적 성역할태도, 열등감이 대 학생의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6).
- 이나영 · 허민숙(2014). “한국의 젠더폭력과 신자유주의 젠더질서: 담론과 실천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가족과 문화』, 26(4), 59-90.
- 이미영(2015).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따른 유형화 연구”, 침례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병도(2011). “청소년의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이성교제 시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스트레스 대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성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균(1999). “청소년의 또래폭력 특성과 대처방안”, 『학교사회복지』, 2.
- 이승출(2012).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학교폭력에 관한 연구”, 『청소년

문화포럼』, 29.

이영숙(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이은혜(2010). “데이트 관계 깊이와 폭력 유형에 따른 여대생의 책임귀인과 용서 가능성 평가”, 중앙대학교 대학원석사학위논문.

이재경 · 이은아(2010), “글로벌 사회의 국가와 젠더”, 이재경 엮음, 『국가와 젠더: 성 주류 화의 이론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이정애(2014). “청소년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학교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정은 · 이미경 · 현명호(2012). “한국판 수용인정척도의 타당화: 데이트폭력 피해 여대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연구, 20(3).

이정화(2006). “데이트폭력의 심리적 후유증“,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영(2011). “젠더감수성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충환 · 신준섭(2015). “청소년 데이트폭력에 대한 가정폭력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분석”, 『청소년학연구』, 22(3) 27~57.

이화영(2014).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신일 · 이정미(2013). “남자 고등학생의 부모 간 폭력 목격 경험, 자존감, 학교폭력 피해, 학교폭력 가해의 관계”, 『학교사회복지』, 26, 27-45.

임혜진(2004). “데이팅 폭력의 실태와 관련변인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임희복(2002). “가정폭력 목격 및 경험과 학교폭력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덕희(2001). “가정폭력 경험자녀의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실천 개입방안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희숙(2002), 부모의 폭력 및 지지행동이 이성교제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50호.

정소영 · 임채영 · 이명신(2010), “대학생의 폭력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제

- 35집,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150-151.
- 정이랑(2013). “거부민감성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감과 책임귀인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해숙(2003). “교사의 양성평등의식 조사 및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정해숙 · 이소연 · 정경아 · 송인자 · 김금미(2004),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 훈련 실태 및 발전방안』, 여성부.
- 정혜정(2003), “대학생의 가정폭력 경험이 데이팅 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3), 73-91.
- 조미숙(1999). 청소년기 자녀가 지각한 가족관계 변인이 청소년의 가족가치관
- 조옥라 외(2002), “성별 감수성 훈련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글로벌 시민 교육 매뉴얼 및 자료집』, (사)또 하나의 문화.
- 조옥라(2003). 『젠더, 경험, 역사, 여성의 경험을 역사화하기』, 서강대학교 출판사.
- 조주영(2015).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 변화 및 사회정서변인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춘범 · 이현(2013). “아동기 신체학대경험이 청소년의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4) 31~54.
- 조현각(2001), “대학생 이성교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가해와 피해의 특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 석사학위논문.
- 주지현(2014). “부모애착, 이성관계 집착 및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삼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경(2012). “여대생의 가정폭력경험이 데이트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 명시적 암묵적 성 고정관념의 매개효과 검증”,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지현(2005), “아동기 가정폭력경험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문제해결능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전공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2000), 아동복지론, 서울: 나남.
- 프리드먼, 제인(2002), 『페미니즘』, 박혜경 옮김, 이후.

- 하예지(2014). “데이트 폭력의 인식과 대처에 관한 연구: 데이트폭력 비네트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단체연합(2014). “베이징+20주년 기념 Post-2015 여성운동 미래전망 만들기, 2차 의제종합워크숍.” 발표문 자료집.
- 한국여성의전화(2009). “데이트폭력 현황”
- 한국여성의전화(2015).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의전화(2014).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 한희선 · 김영주 · 이경하 · 임우연 · 태희원(2014). 『여성젠더사회』, 공동체.
- 허민숙(2011). “가정폭력 담론의 재구축: 가정폭력 피해자 담론과 역량강화 연속선.” 『여성학논집』 28(1): 121-158.
- 허민숙(2012). “폭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친밀한 관계에서의 강압적 통제와 가정폭력 재 개념화를 위한 연구.” 『페미니즘 연구』 12(2): 69-103.
- 현정혜(2006), “대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미리(2005), “젠더감수성(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봉선(2012). 『청소년복지론』, 공동체.
- 홍종관(2012). “학교폭력의 실태, 원인 그리고 대처에 관한 연구”, 『초등상담연구』, 11(2), 237-259.

나. 외국어 자료

- Rosenberg, M. Michael, (1987). 『An Introduction to sociology : study guide』, Toronto : Methuen.
- Aguilar, R. & Nightingale, N.(1994). The impact of specific battering experiences on self-esteem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9, 34-45.
- Antonio, T.. Hokodo, A.(2009). Gender Variations in Dating Violence and Positive Conflict Resolution Among Mexican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24(4).
- Archer, J.(2000). Sex differences in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partners: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26(5), 651-680.
- Atwater, E.(1992). *Adolescence* Englewood Cliff, New Jersey: Prentice Hall.
- Brassard, M. R., Germain, R., & Hart, S. N.(1987). The challenge : To better understand and combt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In M. R. Brassard, R. Germain, & S. N. Hart(Eds.), *psychological maltreatment of children and youth*. New York : Pergamon.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perspective*, Englewood Cliffs, New York: Prentice Hall.
- Bernard, M. S., & Bernard, J. L.(1983), "Violent intimacy: the family as a model for love relationships", *Family relations*, 32.
- Bookwala, J., Freize, I., Smith, C., & Ryan, K.(1992),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7.
- Bouchey, H. A. (2007). Perceived romantic competence, importance of romantic domains, and psycho social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6, 503-514.

- Carlson, B.(1987). Dating violence: A research review and comparison with spouse abuse. *Social casework: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68(1)
- Cascardi, M. & O'Leary, K.(1992). Depressive symptomatology, self-esteem, and self-blame in batter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7, 249-259
- Cate, R., Henton, J., Koval, J., Christopher, F., & Lloyd, A.(1982). Premarital abuse: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3,79-90.
- Chen, Guo-Ming and Starosta, William J.(2000), "Intercultural Sensitivity," in edited by Samovar, Larry A. and Richard E. Porte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 Reader*, 9th edition,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pp. 406-414.
- Chen, R.(1996). Risk factors of sexual abuse among colleg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1), 79-93
- Chodorow, N. J. (2011). *Individualizing Gender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 Christensen, Andrew; Atkins, David C.; Yi, Jean; Baucom, Donald H.; George, William H. (2006). Couple and individual adjustment for 2 years following a randomized clinical trial comparing traditional versus integrative behavioral couple 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 74(6), 1180-1191.
- Cleveland, H. H. , Herrera, V. M. , Stuewig, J. (2003). Abusive Males and Abused Females in Adolescent Relationships Risk Factor Similarity and Dissimilarity and the Role of Relationship Seriousnes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25-339.
- Dobash, R. E. & Dobash, R. P (1981). *Violence against wives*. New York: MacMillan Free Press
- Dobash, R. E., & Dobash, R. P.(1979). Violence against theory. *Journal of*

- gerontology, 30, p.584-594.
- Ely, G., Dulmus, C. N., & Wodarski, J. S. (2002). Adolescent dating violence. In L. A. Rapp-Paglicci, A. R. Roberts, & J. S. Wodarski (Eds.), *Handbook of violence* (pp. 33-53). New York: John Wiley & Sons.
- Evans, S. E., Davis, C. A., & DiLilo, D. K. (2008). "Exposure to domestic violence: A meta-analysis of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3*(2): 131-140.
- Fantuzzo, John W.; Riggio, Ronald E.; Connelly, Sharon; Dimeff, Linda A. Effects of reciprocal peer tutoring on academic achievement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A component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73-177.
- Follette, V., & Alexander, P.(1992). Dating violence: Current and historic correlates. *Behavioral Assessment, 14*, 39-52.
- Gómez, A. M .(2010). Testing the Cycle of Violence Hypothesis: Child Abuse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as Predictor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Young Adulthood, *Youth Society Online First*, published on January 7.
- Gressard, L. A. & Swahn, M. H & Tharp, A. T.(2015). A First Look at Gender Inequality as a Societal Risk Factor for Dating Violence, *Am J Prev Med. 2015 Sep;49*(3):448-57.
- Hanley, M. & O'Neill, P.(1997). Violence and commitment: A study of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 685-703.
- Heise, L. L. (1999). "Violence, Sexuality, and Women's Lives." Parker, R. and P. Aggleton (eds.) *Culture, Society, and Sexuality. New York: Routledge.*
- Henk van Dam, and Minke Valk(1998), *Gender Training: The Source Book*, Royal Tropical Institute, the Netherlands; Oxfam GB.
- Hines, D. A., & Malley-Morrison, K. (2005). Psychological effects of partner abuse against men: A neglected research area. *Psychology of Men &*

Masculinity, 2, 75 - 85.

Hird, M. J.(2000). An empirical study of adolescent dating aggression in the U. K. *Journal of Adolescence*, 23(1), 69-78.

Jaffe, P. G., Wolfe, D. A, & Wilson, S. K.(1990). Children of battered women, Newbury Park, CA : Sage.

Jewkes Rachel, et al.(2013), Prevalence of and factors associated with on-partner rape perpetration: findings from the UN Multi-country Cross-sectional Study on Men and Violence in Asia and the Pacific, *Lancet*, September 10, 2013, e1-e11.

Jezl, D., Molider, C., & Wright, T.(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3(1), 69-87.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 11-19.

Kasian, M. & Painter, S.(1992). Frequency and severity of psychological abuse in a dating populat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7, 350-364.

Kempe, C. H. & Helfer, R. E.(1972). Helping the battered child and his family, Philadelphia: J. B, Lippincott. co.

Koss M. P, Gidycz C. A, Wisniewski N.(1987). The scope of rap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sexual aggression and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er education students. *J Consult Clin Psycho l*. 55(2), 162-70.

Laner, M. & Thompson, J.(1982). Abuse and aggression in courting couples, *Deviant Behavior*, 3, 384-388.

Levy, B.(1990). Abusive teen dating relationship: An emerging issue for the 1990s. *Response*, 13, 3-12.

Lisak, D., Hopper, J. & Song, P. (1996). Factor in the cycle of violence : Gender rigidity and emotional constric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9(4).

Logan, T. K., Shannonm, Lisa, Cole, Jennifer, & Walker, Robert(2006). The impact of differential patterns of physical violence and staking on mental health and help-seeking among women with protective orders. *Violence Against Women*, 12, 866-886.

Magdol, L., Moffitt, T., Caspi, A., Newman, D., Fagan, J. & Silva, P.(1997). Gender differences in partner violence in a birth cohort of 21-year-old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5(1), 68-78

Makepeace, J.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 97-102

Makepeace, J. M.(1986), Gender differences in courtships violence victimization, *Family Relations*,35.

Manjoo Rashida (20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ur Violence against Women, its Causes and Consequences, UN Human Rights Council,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1, (A/RES/48/104)

Margolin, G., & Gordis. E. B. (2000). "The Effects of Family and Communication Violence on Children." *Annu. Rev. Psychol.* 51: 445-479.

Markowitz, F. E. (2001). Attitudes and family violence: Linking intergenerational and cultural theor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2), 205-218.

Marshall, L. L., & Rose, P. (1988), Family of orgin and courtship viol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6(9). 414-418.

McCloskey, L. A., & Lichter, E. L. (2003). "The Contribution of Marital Violence to Adolescent Across Different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8: 390-412.

Miers, Margaret(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40, No. 1, pp. 69–77.
- Mukhopadhyay, Maitrayee and Marguéite Appel(1998), "Gender Training and Social Transformation: An Agenda for Change," in edited by Cummings, Sarah,
- Murphy, J.(1988). Dating abuse and forced intercourse among college students. In G.T, Hotaling, Finkelhor, J. T. Kirkpatrick, and M. A. Straus. Family abuse and its consequences: New directions in research, Newbury, CA: Sage.
- Neufeld, J., McNamara, J., & Ertl, M.(1999). Incidence and prevalence of dating partner abuse and its relationship to dating practices.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14(2), 125–1
- Newman, Constance(2003), Gender Sensitivity Assessment Tool for FP/RH Curricula; Chapel Hill, NC: Intra Health International, ii.
- Nussbaum C. Martha (2005), "Women's Bodies: Violence, Security, Capabilitie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6:2.
- O'Keefe, M., Factors(1998). Mediating the Link betwee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Vol. 13, Springer US,
- Olweus, D.(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their whipping boys. Washington, D. C.: Hemisphere Pres
- Olweus, D.(1996).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can do. Oxford, UK: Blackwell Publisher
- Puig, A.(1984). A growing college counselling concern.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25
- Rachel Heath(2012). Women's Access to Lab Market Opportunities, Control of Household, Resources and Domestic Violence: *World Bank Policy Research or king Paper 6149*, World Bank.
- Rada C. (2014). Violence against women by male partners and against

- children within the family: prevalence, associated factors, and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in Romania, a cross-sectional study, *Rada BMC Public Health*, 14:129.
- Richard J. Gelles (1998), 이동원, 김지선 역, 「가정폭력의 허상과 실상」, 길안사, 147.
- Riggs, D. & O'Leary, K.(1989). A theoretic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In Pirog-Good, M & Stets, J.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Praeger*, 53-71.
- Riggs, D. S./ O'Leary, K. D.(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Vol.11.
- Riggs, D., O'Leary, K., Breslin, F.(1990). Multiple correlates of physical aggression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 Robert Geffner, Susan B. Sorenson, & Paula Lundberg-Love(1998). Violence and Sexual Abuse at Home: Current Issues in Spousal Battering and Child Maltreatment, *Underwager, R. SSUES IN CHILD ABUSE ACCUSATIONS*, 9(3-4).
- Rofel, L. (1999). *Other Modernities. C. 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osenbaum, A., & Leisring, P. A. (2003). Beyond power and control: Towards an understanding of partner abusive men.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1), 7-22.
- Schnurr, M. P. & Lohman, B. J.(2013). The Impact of Collective Efficacy on Risks for Adolescents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2, 4, 518-535.
- Schnurr, M. P.(2009). Precursors to adolescents'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nd healthy romantic relationships, Graduate College Graduate Theses and Dissertations.
- Seiffge-Krenke, I.(2003). Testing theories of romantic development from

- adolescence to young adulthood: Evidence of a developmental sequ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7, 519–531.
- Sigelman, C., Berry, C., & Wiles, A.(1984). Violence in college students'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5, 530–548.
- Simonelli, C. & Ingram, K.(1998).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experiencing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 667–681.
- Simons, R. L., Lin. K. & Gordon, L. C.(1998). Socialization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le dating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 Spencer, G. A. & Bryant, S. A.(2000). Dating violence: a comparison of rural, suburban, an urban teen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27, 302–305.
- Stappenbeck, C. A. & Fromme, K.(2010).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of heavy drinking and physical dating violence in men and women. *Addictive Behaviors*, 35(5), 479–485.
- Stets, J. E. & Pirog-Good, M.(1987).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0, 530–548.
- Stets, J. E.(1992). Interactive process in dating aggression: A nation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165–177.
- Stets, J., & Henderson. D.(1991). Contextual factors surrounding conflict resolution while dating: Results from a national study. *Family Relation*. 40. 29–36.
- Straus, M. A.(2004). Prevalence of V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Nu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Vol.10, 790–811.
- Straus, M. A.(1990). The conflict tactics scale and its critics: An evaluation and new data on validity and reliability. In M. A. Straus, R. J. Genslles(Eds.). *Phys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49–71. New

- Brunswick, NJ: Transactions Books.
- Sugarman, D. B., & Hotaling, G. T. (1989). Dating violence : prevalence :prevalence, context, and risk markers, In M. A. Pirog-Good and J. E. Stets(Ed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 : Emerging social issues.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 Thompson, Jane & Mcgivern, Janet(1995). Sexism in the seminar: strategies for gender sensitivity management education, *Gender & Education*, Vol. 7(3).
- Thompson, W. E.(1986). Courtship violence, Toward a conceptual understanding. *Youth and society*, 18(2).
- UN Women & UNICEF(2013), Addressing Inequalities: Synthesis Report of Global Public Consultation, Global Thematic Consultation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The World We Want.*
- UNIFEM(2007). Violence against Women-Facts and Figures. [www. unifem. org.](http://www.unifem.org)
- Walker, L. E.(1980). *The Battered Women*, Harper Perennial.
- Wallace, H.(2005). *Family violence: legal, medical, and social perspectives. Boston, M A: Pearson*
- White, J. & Koss, M.(1991). Courtship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6.
- White, J. W. & Smith, P. H.(2009). Covariation in the Use of Physical and Sexual Intimate Partner Aggression Among Adolescent and College-Age Men A Longitudinal Analysis. *Violence against Women*, 15(1), 24-43.
- WHO(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Summary Report, WHO.
- Winstok, Z.(2007). Toward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2, 348.
- Wolf, K. A., & Foshee, V. A. (2003). Family violence, anger expression styles, and adolescent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18(6), 309-316.

World Bank (2011). World Development Report 2012: Gender Equality and Development, World Bank: Washington, D. C.

Yllo, K.(1993). Though a feminist lens: Gender, power, and violence. Newsbury park, CA: Sage publication.

다. 기타 자료

<http://www.sbs.co.kr>; SBS 스페셜 “어떻게 영재가 되는가”

국가통계포털 KOSIS,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http://kosis.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중앙 아동보호전문기관 <http://korea1391.org>

질병통제예방센터 (2014). Understanding Teen Dating Violence.
www.cdc.gov/violenceprevention

청소년 폭력예방재단(2011),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http://www.jikim.net/>

청소년 폭력예방재단(2013), “학교폭력실태조사 발표 및 경향”
<http://www.jikim.net/>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Violence,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by Lee, Hwa-Soo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Silla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based on awareness of social issues of dating violence, which has rapidly increased recently in severe condition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and social learning theory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perpetrators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d childhood violence, this study was performed according to the need to study violence link that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ffected school violence and subsequently affecte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aimed to analyze whether gender sensitivity could moderate or buffer the negative effect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as a third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domestic and school violence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o this end, the study subjects were students in universities and colleges located in Busan, and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400 students by purposive quota sampling. Finally, 1,052 questionnaires were used for this study.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is, this study tested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Second,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Third,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directly affec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Fourth, experiences of family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indirectly affect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through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Fifth, gender sensitivity has a moder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school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and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enhance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an active support system for family violence victims and enhancement of the judicial process. Third, it is necessary to perform more active intervention and restorative mediation in school violence. Fourth, there is a need for legal and institutional devices to enhance and spread social perceptions of gender sensitivity. Fifth, it is necessary to settle non-violent family culture through gender sensitivity training for family members. Sixth, compulsory education at school should be implemented to extend gender sensitivity. Seventh, there is a need to create educational programs, prepare and distribute manuals to deal with violence to extend gender sensitivity.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ollow-up studies.

Key words : dating violence, gender sensitivity, experience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ocial learning effect, feminist theory, moderating effect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젠더와 폭력에 대한 대학생들의 의식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젠더(gender)’란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사회적 성을 의미합니다.

본 설문지의 모든 질문에는 맞고 틀린 정답이 없습니다. 평소 귀하께서 생각하고 느끼신 대로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다소 질문내용이 지루하시거나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내용은 통계적으로 처리되어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가 공개되거나 타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본 설문지의 질문에 빠짐없이 기입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16년 3월

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연구자 : 이 화 속

지도교수 : 홍 봉 선

010-9336-7500 / asuleee@naver.com

1. 아래 문항을 잘 읽고 귀하의 평소 생각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아이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성스럽게 키우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나의 성별에 기대되는 모습(남자다움/여성스러움)과 일치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나의 배우자는) 현모양처가 되기를 바란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 아이가 자신의 성별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상관없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여성스러운 남자나 남자 같은 여자는 거부감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고위 관료나 경영자가 대부분 남성이라는 게 항상 이상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남자가 하는 일과 여자가 하는 일이 구별되어 있어 갑갑하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남자보다 여자가 담배 피는 것이 더 보기 싫다.	①	②	③	④	⑤
9	나에게 있어서 남자는 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다른 사람이 성별로 인해서 차별 받으면 남의 일 같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남자끼리 키스하는 것은 혐오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내 가족이 동성애자일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	①	②	③	④	⑤
13	나는 내 친구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꺼림칙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는 트랜스젠더인 사람과 거리낌 없이 지낼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한국에서도 동성애자의 결혼이 허용된다면 반가울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에 대한 혐오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사람은 꺼린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맞고 들어오는 것보다는 때리고 들어오는 게 덜 속상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사랑하는 여자에게 저돌적인 남자가 멋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선배를 우습게 보는 후배를 보면 군기를 잡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악당을 때리는 것을 보면 통쾌하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제때 주먹을 쓸 줄 아는 남자가 멋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된장녀가 정말 한심하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페미니스트가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에이즈(HIV)에 감염된다면 차라리 죽고 싶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성차별이니 성평등이니 하는 얘기들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나는 나의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7	나는 내가 성차별적인 생각을 할 때 부끄럽다.	①	②	③	④	⑤
28	나는 성 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29	나에게 있어서 나 자신의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30	나는 내가 단지 남자이거나 여자가기 때문에 혜택 받는 것이 항상 신경 쓰인다.	①	②	③	④	⑤
31	나는 성차별과 별로 관련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II. 사이가 좋은 부모님이라도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은 부모사이에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행동들 입니다. 귀하의 아동기 시절 부모님의 갈등이 가장 심했을 때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행동을 몇 번이나 보았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세요.

문 항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또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혀 없음	2~3 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이 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심한 말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	①	②	③	④	⑤
3. 상대방에게 물건을 집어 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4. 세게 밀쳤다.	①	②	③	④	⑤
5.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6.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7. 물건(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8.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9. 목을 졸랐다.	①	②	③	④	⑤
10. 칼(가위)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Ⅲ. 다음은 여러분의 아동기 시절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행할 수 있는 몇 가지 행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일어났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세요.

문 항	부모님이 나에게				
	전혀 없음	2~3 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이야기나 심한 말 등을 해서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2. 소리를 지르거나 고함을 쳤다.	①	①	②	③	④
3.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했다.	①	①	②	③	④
4. 실제로 때리지는 않았지만 때리겠다고 위협했다.	①	①	②	③	④
5. 멍청이, 바보, 게으름뱅이 등과 같은 좋지 않은 호칭을 붙여 불렀다.	①	①	②	③	④
6. 회초리나 자로 손바닥이나 종아리, 엉덩이 등을 때렸다.	①	①	②	③	④
7. 물건을 집어던졌다.	①	①	②	③	④
8. 세게 밀쳤다.	①	①	②	③	④
9.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①	②	③	④
10.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①	②	③	④
11. 회초리 이외의 물건(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린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12.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①	②	③	④
13. 목을 조른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14. 칼(가위) 등의 흉기로 위협하거나 상해를 입힌 적이 있다.	①	①	②	③	④

Ⅳ. 여러분의 청소년기 학교생활 중 경험했던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이 귀하에게 얼마나 일어났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 주세요.

번호	문 항	전혀 없음	2~3 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고 모른 채 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고 그냥 지나쳤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가만히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을 보아도 평소대로 내 할 일을 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보기만 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또래괴롭힘 상황에 별 관심이 없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와 잘 놀아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위로해주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괴롭힘 상황을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친구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도와주라고 말했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에게 그만하라고 말했다.	①	②	③	④	⑤
13	반 친구들이 한 아이를 괴롭힐 때 옆에서 부추긴 적이 있었다.	①	②	③	④	⑤
14	다른 아이가 누군가를 괴롭히기 시작하면 나도 같이 괴롭혔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누군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면, 구경하려고 갔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괴롭힘 상황을 구경하라고 다른 아이들을 부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보고 비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괴롭힘 당하는 아이를 붙잡으며 괴롭히는 아이를 도와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나는 다른 아이를 때리거나 발로 찬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다른 아이에게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다른 아이에게 신체적 장애나 외모와 관련하여 놀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다른 아이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는 다른 아이를 괜히 툭툭 치거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4	나는 여럿이 놀 때 고의로 한 아이를 끼워주지 않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나는 어떤 아이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서 친구들이 그 아이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6	누군가가 나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려 반 아이들이 나를 싫어하게 만들었다.	①	②	③	④	⑤
27	반 아이들이 내가 듣기 싫어하는 별명을 부르거나 욕을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28	반 아이들이 나에게 괜히 툭툭 치거나 시비를 걸어왔다.	①	②	③	④	⑤
29	반 아이들이 노는데 일부러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⑤
30	반 아이들이 나의 신체적 장애나 외모에 관련하여 놀렸다.	①	②	③	④	⑤
31	반 아이들이 나를 때리거나 발로 찼다.	①	②	③	④	⑤
32	반 아이들이 나의 돈 또는 물건을 숨기거나 빼앗았다.	①	②	③	④	⑤

V. 다음은 귀하의 이성교제 경험에 관한 문항입니다.

1. 귀하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습니까?

- ① 현재 사귀고 있다. ② 과거에 사귀 경험 있으나 지금은 없다.
 ③ 동성애 경험이 있다.
 ④ 이성교제의 경험이 전혀 없다. → 8페이지 VII. (일반적 사항) 문항으로 가세요.

2. 이성교제 친구(현재 교제 중이거나 이전에 교제하였던 이성 중 가장 친밀했던 상대방)의 연령과 교제기간, 직업은 무엇인가요?

이성친구의 연령	▶ 만 _____ 세
교제기간	▶ _____ 년 _____ 개월
이성친구의 직업	① 고교생 ② 대학생 ③ 직장인 ④ 무직 ⑤ 기타 ()

3. 이성(동성)교제의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현재 사귀고 있거나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 중 가장 친밀했던 이성과의 교제기간은 얼마입니까? (년 개월)

- ① 1년 미만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5. 이성교제 친구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계였습니까?)

- ① 애정이 거의 없으면서 부정기적으로 데이트를 한다.
 ② 애정은 별로 없지만 자주 데이트를 한다.
 ③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지만 결혼에 대해 이야기해본 적은 없다.
 ④ 사랑하고 결혼에 대해 의논했지만 결혼할 계획은 아직 없다.
 ⑤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다.

VI. 다음은 남녀 이성교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다툼이나 갈등상황에 관한 문항입니다.

현재 교제하고 있는 이성이나 이전에 교제했던 이성과 다음과 같은 경험을 얼마나 했는지 가장 가까운 곳에 √ 표 해주세요.

문 항	내가 이성친구에게				
	전혀 없음	2~3 년에 한두번	일년에 한두번	한달에 한두번	주1회 이상
1. 모욕적인 말이나 욕(상스러운 표현)을 하거나 비난했다.	①	②	③	④	⑤
2.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질렀다.	①	②	③	④	⑤
3.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겠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4.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했다.	①	②	③	④	⑤
5. 다른 사람이나 그 밖의 다른 일에 너무 많은 주의를 기울인다고 비난했다.	①	②	③	④	⑤
6. 전화통화의 내용을 듣거나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감시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7.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데 허락을 받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8. 신체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과 부정적으로 비교하거나 비난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9.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10. 물건을 집어 던졌다.	①	②	③	④	⑤
11. 세계 밀쳤다.	①	②	③	④	⑤
12.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13.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14. 물건으로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15.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①	②	③	④	⑤
16. 목을 졸랐다.	①	②	③	④	⑤
17. 칼(가위)이나 흉기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①	②	③	④	⑤

Ⅶ. (일반적 사항) 다음 각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번호에 √ 표 해주시고 빈칸에 간단히 적어주세요.

1. 귀하의 성별은? ① 여 ② 남

2. 귀하의 연령은?
 ① 19세~20세 ② 21세~22세 ③ 23세~24세 ④ 25세~26세
 ⑤ 27세~30세 ⑥ 기타(세)

3. 귀하의 학번 및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학번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4. 귀하가 다니고 있는 대학은 몇 년제입니까?
 ① 2년제 ② 3년제 ③ 4년제 ④ 5년제

5. 귀하의 전공은 어떤 계열입니까?
 ① 인문·사회계열 ② 환경·이공계열 ③ 예·체능계열 ④ 보건계열 ⑤ 사회복지계열
 ⑥ 관광·경영계열 ⑦ 교육학계열 ⑧ 법학계열 ⑨ 기타 ()

6. 귀하는 병역을 이행하셨습니까?
 ① 군필 ② 미필 ③ 해당사항 없음(여성, 면제 등)

7. 귀하의 경제적 지위는 현재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최상위계층 ② 중상위계층 ③ 중간계층 ④ 중하위계층 ⑤ 하위계층

8. 종교는 무엇인가요?
 ① 기독교 ② 불교 ③ 천주교 ④ 무교 ⑤ 기타 ()

9. 출신 고등학교 유형은?
 ① 인문계고등학교 ② 특성화고등학교 ③ 대안학교
 ④ 특수목적고등학교 ⑤ 기타 ()

10. 출신 고등학교 남녀공학 여부는?

- ① 남녀공학(합반) ② 남녀공학(분반) ③ 남자고등학교 ④ 여자고등학교

11.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는 어디입니까?

- ① 특별시, 광역시 등 대도시 ② 중·소도시 ③ 농·어촌
④ 기타()

12. 귀하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3.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부모님 두 분이 같이 사신다.(일 때문에 따로 사신다.)
- ② 이혼하셨다.
- ③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사별하셨다.(돌아가셨다.)
- ④ 부모님이 별거하신다.(가정 불화로 따로 사신다.)
- ⑤ 재혼하셨다.
- ⑥ 기 타 ()

♡ 귀중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